

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Interfaith Coalition Conference for Global Citizens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

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프로그램

2021년 11월 20일(토)

10:00-11:15	개회식	- 주제영상 - 세계평화기도(1분 묵념) 김범현(원불교 종교연합추진위원회 공동사무차장) - 환영인사말 사영인(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공동의장) - 평화메세지 수잔 헨더샷(Interfaith Power&Light 대표) 마리아 왕(호놀룰루 사미니드대학교 부교수) - 기조연설 (주제)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 (연사) 아니 샤카(세계불교대학교 명예총장) - 불교기독교대화 (좌장) 테라사와 쿠니히코(와트버그대학교 부교수) (패널) 레오 르페뷔르(미국 불교기독교연구학회 회장), 아니 샤카(세계불교대학교 명예총장)
11:30-13:00	세션 1.	- 세션 1. 평화대담 (주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더 나은 회복” (패널) 수잔 에니스(호주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좌장, 박도연(원불교 유엔사무소 부소장) 요 상 추(세계불교도우의회 상임위원), 조니 칼리(Kosmos Journal 유엔대표)
14:15-15:45	세션 2.	- 세션 2. 지식대담 (주제) “하나의 세계, 인류는 한 가족을 위한 종교간 집단지성” (패널) 박도광(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장)/좌장, 이순영(포콜라레운동 종교간대화 고문) 카토 줄리우스-케이(캐나다 킹스칼리지-웨스턴대학교 부교수), 허석(원광대학교 부교수),
16:00-17:30	세션 3.	- 세션 3. 글로벌대담 (주제)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세계정신과 세계시민성” (패널) 마츠이 캐시(세이센대학교 교수)/좌장, 엘레인 돈린(샌프란시스코 종교연합위원회 이사) 정우탁(前 UNESCO APCEIU 원장), 아이작 토마스(URI 국제이사)

2021년 11월 21일(일)

11:00-12:00	세션 4.	- 세션 4. 평화대담 (주제)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연합(UN)과 종교연합(UR)” (좌장) 오경석(원음방송 라디오PD) (패널) 김성곤(前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명예회장), 김원수(前 유엔사무차장)
13:00-14:45	세션 5.	- 세션 5. 청년대담 (주제) “현대 사회의 위기와 종교의 책임” (패널) 전해복(새살회 청년대표)/좌장, 이성영(가톨릭), 백현빈(개신교), 조여주(원불교), 이재선(천도교) 마츠다 사야코(입정교성회), 아라이 마사키(국제자유종교연맹 일본지부)
15:00-16:00	폐회식	- 종합토론 (주제) “종교, 세계시민성, 하나의 세계” (패널) 이사호(국제종교자유연맹 청년자문관)/좌장, 황상원(원불교 종교연합추진위원회 공동사무차장) - 폐회사 사카이 노리오(국제자유종교연맹 일본지부 위원장) 남궁문(원불교 종교연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한 사람들(2020-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참여자 리스트(2020-2021)

국제기구

이리바 보코바 (前 유네스코 사무총장)
김원수 (前 유엔사무차장)
정우탁 (前 UNESCO APCEIU 원장)
모니카 플뢰러 (반기문세계시민센터 대표)

ICCGC & 원불교 UR 관계자

사영인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공동의장)
김효철 (前 원불교 유엔사무소 소장)
최준명 (종교연합 후원재단 이사장)
김성곤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남궁문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김범현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공동사무차장)
황상원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공동사무차장)
박도연 (원불교 유엔사무소 부소장)

학계 & 교육계

레오 르페뷔르 (미국 불교기독교연구학회 회장)
아니 샤카 (세계불교대학교 명예총장)
캄마이 담마사미 (산스테인트불교대학교 총장)
박도광 (원광대학교 동양대학학원 원장)
바거스 락사나 (산타나달마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캄마이 담마사미 (산스테인트불교대학교 총장)
박도광 (원광대학교 동양대학학원 원장)
바거스 락사나 (산타나달마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무 무 미윈트 (양곤대학교 오리엔탈학과 학과장)
제임스 퍼슨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마츠이 캐시 (세이센대학교 교수)
마리아 윈 (호놀룰루 사미나드대학교 부교수)
테라사와 쿠니히코 (와트버그대학교 부교수)
카토 줄리우스-케이 (킹스칼리지웨스턴대학교 부교수)
박 소피아 (홀리네임스대학교 부교수)
허석 (원광대학교 부교수)
에밀리 페리 (옥스퍼드대학교 박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자문관)

종교 & NGO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유엔NGO협의회 대표)
사쿠라이 히로 (유엔종교NGO위원회 의장)
칼 무렐 (UN Values Caucus 공동의장)
사카이 노리오 (국제자유종교연맹 일본지부 위원장)
수잔 헨더샷 (Interfaith Power&Light 대표)
엘레인 돈린 (샌프란시스코 종교연합위원회 이사)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수잔 에니스 (호주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수파멧 윤야식 (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요 상-츄 (세계불교도우의회 상임위원)
수각 정사 (세계불교도우의회 상임위원)
김선명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
이순영 (포클라레운동 종교간 대화 고문)
조니 칼리 (Kosmos Journal 유엔대표)
카미야 마사미치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시니어자문관)
무라야마 하루가 (세계불교도우의회 청년회 회장)
아이작 토마스 (United Religions Initiative 국제이사)
이사호 (국제자유종교연맹 일본지부 청년자문관)
시다스 우제이 (하와이 기후평화연구소 자문관)
이태은 (원불교 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오경석 (원음방송 라디오PD)
국지훈 (원불교 정책연구소 연구원)

청년

전혜복 (원불교)
조여주 (원불교)
강지영 (원불교)
백지연 (가톨릭)
이상영 (가톨릭)
백현빈 (개신교)
이재선 (천도교)
마츠다 사야코 (입정교성회)
아라이 마사키 (국제자유종교연맹 일본지부)

환영 인사말



사 영 인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공동의장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장
원불교 유엔사무소 소장



환영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좋은 저녁입니다.

2021년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ICCGC 2021)에 참석하신 모든 종교 및 영적 지도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계평화를 위해 그리고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익심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빈곤, 핵무기 등 글로벌 위협들이 공익심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심의 회복은 세계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원장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성장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그렇지만 어떤 아이들의 부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은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부와 지식 등을 누가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강과 약으로 나누어지는, 단순히 한 가정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국가, 체계의 갈등과 지구적인 세계적 위기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전 세계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전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인 공익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하여 나의 삶이, 다른 이들의 타인의 삶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공익심을 요구합니다. 이런 공익심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사회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 선택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전 세계인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사람들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이번 종교연합세계시민 회의에 여러 세션에서는 지혜로운 스승들, 학자, 지도자들이 함께 지구적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과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적인 표준으로서의 도덕과 윤리를 시대정신에 맞게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세계시민, 집단신성을 구축해가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되는 일에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권능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속에서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두 손 모아 일심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화 메시지



수잔 헨더샷

Interfaith Power&Light 대표

종교연합세계시민회의에 참여하게 되어 참 영광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파워 앤 라이트(Interfaith Power&Light)를 대표하여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는 종교연합 비정부기구(NGO)로서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21년 전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종교 간 공동 대응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단체의 미션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들을 기후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들이 기후변화에 반대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우리는 안정적 기후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건강하고, 반영하는 자연세계와 상호연결된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떠안고 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과 업무의 변화로 불안한 상황이었죠. 또한 병과 사망에 대한 지표가 계산될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슬픔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팬데믹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질병이 나의나라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우리의 가슴은 어떻게 이 슬픔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물론 기후변화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불안과 슬픔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재해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종과 서식지는 사라지고 신성한 지구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재건하려면 사람과 국가가 이 도전과제를 함께 마주해야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함께 마주해야 합니다. 인간, 보건, 기후변화, 안보, 그리고 평화. 하나의 상호 연결된 이슈로 보아야 오래가는 조화를 이 세상에서 일굴 수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오래, 품은 가치를 찾아볼 때 나타납니다. 여기서 종교의 역할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덕과 윤리를 반영합니다. 가장 깊이 있는 가치는 사랑, 정의, 희망, 용기를 나타냅니다. 이 가치에 근거한 세상은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줄 것입니다. 모두에게 말입니다.

“공감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이 담론 그리고 이 컨퍼런스를 위한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공감입니다. 우리는 함께 묶이고 엮여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나머지도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 이처럼 묶여있고, 우리는 지구와 살아있는 것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시스템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를 전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의 슬픔과 기쁨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영적 변화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은 우리세상의 진정한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기회는 믿음의 공동체와 개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영성과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게 되면, 우리는 보다 인간보건, 기후변화, 안보 등 세계평화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변화를 이룰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해야합니다. 오늘 이처럼 중요한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교연합 제창 50주년

대산종사는 원기 55년(1970) 일본에서 열린 제1차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에 사람을 보내어 전 세계 종교인들 앞에서 '세계평화 3대 제언'을 제창(하였다. 그 다음 해인 원기 56년에 원불교 개교 반백년 대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종교인들을 초대해 가운데 종교연합기구 창설을 제의하였다. 이에 세계종교인들 앞에서 종교연합운동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1970년을 종교연합 제창 원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계평화 3대 제언

종교연합 창설

우리 모든 종교인들은 합심협력해서 정치 UN에 대등한 종교 UR을 창설시켜서 인류에 대한 영과 육의 빈곤·질병·무지를 퇴치시킬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갖자

공동시장 개척

우리 모든 인류가 나라와 사상의 울을 넘어서서 공동시장을 개척하여 생존경쟁보다 서로 공생 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

심전계발 훈련

우리 모든 인류가 묵어 있는 마음 발을 계발하고 훈련시켜 마음을 크게 넓히고 밝히고 잘 쓰는 슬기로운 새 나라 새 세계를 만들자



마리아 원

호놀룰루 사미나드대학교 부교수

오늘 우리는 하천과 강, 강아귀와 만, 호수, 연못, 대양과 바다, 빙하와 만년빙, 하늘에서 내리는 물인 공기와 구름, 눈, 우박, 서리, 비 등 지구전역에 많은 물을 매개로 모였습니다.

제가 달과 태양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조화, 정의, 평화의 삶을 증진시키고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지성을 결합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투메칼라니 오레카호노야”

하늘이 눈물을 흘리면 땅은 살아납니다.

(하와이 속담)

불의가 더 이상 행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물과 같이 한다면 한 방울의 평화라 할지라도 생명체에 닿아서 메마른 곳에 희망과 빛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측량할 수 없는 잠재력에 한 방울 우리의 선함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선함을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우리가 베푸는 것에 충분하지 않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성한 영감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우리의 기도, 성가, 묵상으로, 명상으로 힘을 얻어 공통으로 관용의 생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새로운 인가를 구분 짓는 과정에서 증오, 분노, 걱정, 절망, 고독이 생겨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팬데믹 동안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음을 인식하고 이 굳어 버린 마음을 다시 살아있는 마음으로 되돌려서 더디더라도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더 삶들을 그냥 지나치실 건가요? 잠시 멈춰서 눈을 감고 땅을 만지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를 느껴보세요.

평화를 가르치지 말고 우리자신이 평화가 됩시다. “아호네 하나누이 케에 홀로후이아”, 모든 이가 함께한다면 이루지 못할 목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샤카

세계불교대학교 명예총장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

좋은 아침입니다. 존경하는 학자여러분, 영적인 친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외해적인 상황의 분기점에 서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그리고 위험성이 큰 코로나 19라는 질병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코로나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2년 동안 겪었고 보았습니다. 코로나는 악재와 같은 상황을 일으켰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와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의 적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학에도 의존 했습니다, 과학이 도움, 피난처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땠나요? 과학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코로나19를 살펴보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힘이 있다고 느끼니까?

이 싸움에서,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싸움에서 이겨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종교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적인 것을 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정신이, 믿음이 강하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19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었고, 우리의 길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 19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하고 온갖 방법들을 고민하고 시도해보았습니다. 백신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활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컴패션(compassion)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

나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코로나는 살아남고,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과 친절을 코로나에게도 전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접근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우정을, 사랑을 전파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 모르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평화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로써 우정, 우의가 생겨납니다. 저는 이게 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19의 특성 이해해야합니다. 그 진정한 특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더 전할 수 있고, 더 깊고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드코로나(Life with corona)를 평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해치지 않고 말입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19시대에 생존하려면 우리는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이것은 결국 인지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파티를 할 때에도, 대화를 할 때도 인지를 놓지 않는 것이지요. 이로써 우리는 살려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도래했지만 하나로 우리는 여여 있습니다. 연합을 통해서 함께 하나로 위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시면 코로나19는 인류의 강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물리적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함께 일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서로간의 거리에 대해서도 이해해야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있고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류입니다. 모든 종교를 살펴봤을 때도 우리는 서로 옆에 서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고립에 대해 더 생각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태국 불교스님들이 단순히 절과 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종교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만 수동적 방식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실제로 실천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됨, 존재, 마음챙김 등 이런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됩니다. 종교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관점의 주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읽은 한 책이 기억납니다. 로젠 스트릭의 저서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 다. 제목도 재미있었습니다. 도전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었는데, 이 책은 종교의 중요한 기능을 질문했습니다. 종교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편함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묻는 책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살피봅니다. 편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안함 역시 중요한 메시지이고 중요한 종교적 수행입니다. 특히나 인류가 위기를 겪을 때 이는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이것을 살피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진전해야 합니다. 내년을 향해서, 그리고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는 종교, 국적, 인종을 잊어버리고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사회도 경제도 포함됩니다. 또한 기후변화도 살피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듭니다. 인간에 대한 것이지요.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국경, 종교, 국적을 생각하지 않고 애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국에서 팬데믹 동안에 모든 불교사원들이 사원을 영적인 센터로 만들어서 보건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예전부터 불교 스님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역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시 사회에 돌려주기도 합니다. 평화와 영적인 영성적인 지원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태국의 사원들, 불교 스님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불교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행동, 실천으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바꾸어 사회적인 간호사, 정신적인 간호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격리, 고립되어 있는 가정과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의 의상을 입고 가기 때문에 스님인지 일반인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불교 스님이라는 글자를 써 붙이고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격리중인 가정이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 장구를 착용했으나, 마음은 열린 상태로 그들을 찾아 갔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격리되고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식량, 약품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스님들이 단순히 절과 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종교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만 수동적 방식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실제로 실천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료계에 지원을 하고, 모든 불교 사원들이 병원에 지원을 하고 불교의 스님들이 고립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 식량 등 많은 것에 있어서 병원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굉장히 많은 변혁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팬데믹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부정적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억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사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굉장히 변혁적인 도구가 되어 어떻게 종교가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제 불교사원들이 단순히 물리적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화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나 사원에 가지 않고도 불교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 와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종교가 사라진다는 안 좋은 면이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다시 차려 이러한 기술을 잘 사용해서 어떻게 종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학자들은 기술 종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술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에 신념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컴퓨터가 말하는 것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를 가든 우리가 알아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지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래 종교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종교의 아이디어, 선한 메시지를 기술적인 것만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가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접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세대 이전의 세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사람들이 더 교양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까입니다. 이 위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지적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연결의 방식은 지금 바뀌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 연결은 단순히 말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설교와도 연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종교의식을 할 때 소통이 필요합니다. 미래가 불확실 할 때에도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불확실 속에서도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역할 자체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방식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예시로, 프란체스코 교황이 종교의 돌봄, 단순히 이것이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물도 있지만, 우리가 신이 창조한 것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환경현상과 위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우리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호의존성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상호의존성은 우리가 사회적,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래에 종교의 역할은 영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있어서 신체적인 건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약해지는 것과 영적인 건강이 약해지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21세기는 다원주의세계입니다. 이 다원주의 속에서 종교의 아이디어는 한 걸음 더 나셔야 합니다. 여러 집단의 연결, 집단 간의 연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종교가 당신의 종교보다 더 좋습니다라는 우월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서로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종교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것 전에 어떤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더할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까요? 미래의 삶의 방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래 세대들이 종교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종교자체를 멀리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글로벌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우리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종교의 역할을 생각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기독교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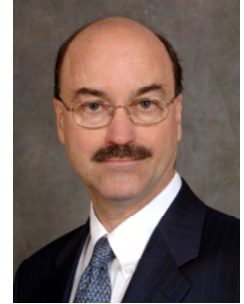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



테라사와 쿠니히코
미국 와트버그대학교 부교수



아니 사카
세계불교대학교 명예총장



레오 르페뷔르
미국 불교기독교학회(SBCS) 회장

미국 불교기독교연구학회 주관 <불교기독교 대화>

(좌장) 테라사와 쿠니히코

(패널) 아니 사카, 레오 르페뷔르

테라사와 쿠니히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계의 지도자 그리고 크리스찬계의 지도자와 함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기쁩니다. 기조연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르페뷔르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척 훌륭한 기조연설을 청해드렸습니다. 많은 통찰을 가지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술의 중요성, 기술종교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들었습니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간호사의 역할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가 많이 마주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조연설을 잘 들었는데요, 이제 대화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불교계의 접근법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톨릭 접근법을 듣고 싶습니다. 르페뷔르 박사님. 가톨릭 접근법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 시대에 어떤 접근법이 필요 할까요?

레오 르페뷔르: 저도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원불교에 계신 친구 여러분, 이 세션을 참여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조 연사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동의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호연결성,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 모여야 한다는 것, 세상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톨릭계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1년 반전에 전례없는 협력이 있었습니다. 바티칸 지도자들의 협력이었습니다. 종교간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연대를 논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논의를 해본 것입니다. 우리가 한데 엮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겸손과 취약성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어땠나요? 가톨릭이 어땠나요? 다른 종교적 전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배경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비하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겸손과 취약성에 대해 논의 해보았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 취약성, 겸손을 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존중입니다. 적대적인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팬데믹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타인을 탓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을 탓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성적이지 않지만 아시아인들을 비난하는 풍조도 생겨났습니다. 부정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존중, 또 존중이 필요합니다. 지구에 많은 생명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공동의 선입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국가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가 다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기조연사분과 크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캠페인의 아이디어를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아이디어, 그리고 석가모니의 아이디어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좁은 관점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원칙을 살펴보면, 바로 대화와 상호학습입니다.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경청하는 문화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사람들의 경험을 청해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티칸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 슬픔, 괴로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고통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그리스도의 아이디어와 부처님의 아이디어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의 아이디어를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회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뉘우침과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전통적으로 여러 가치가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대해서도 방금 영상을 보았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25년 전, 하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정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전 과거에 다른 종교인들에게 잘못 대했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모임에서 우리는 울음소리를 들어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우는 소리, 형제자매가 우는 소리, 괴로움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제시한 아이디어와도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원칙은 자비로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선물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봅니다. 은혜인 것이지요. 이것은 라이벌 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과 라이벌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유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마지막 사랑의 “덕”입니다. 사카 총장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친절함, 사랑을 베푸는 것은 기독교 전통입니다. 고통을 완화시키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무슨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에 유형이 있습니다. 신체적,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의료적인 기술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장님께서 정신적인 고통이 많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의료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람의 연민과 이해를 통해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포용의 문화를 배워야하고, 적대감을 버려야 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를 영성을 통해서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와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와 석가모니의 부처의 도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라사와 쿠니히코: 네, 레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카 총장님의 말씀과 레오교수님의 말씀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카 선생님, 구체적으로 기독교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립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불교의 접근 방식도 있겠지만, 또 기독교의 접근 방식도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협력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사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태국에 팬데믹 시기에 불교의 스님이 기독교 성직자들과 많은 협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란히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기독교계에게서 배운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최근에 불교계에서도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교의 연민은 기독교의 아가페와 같은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전체의 연민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스님들이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해 동정, 연민을 느끼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이 연민을 통해서, 돕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합니다. 이 도움이 정말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는데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열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았습니다. 이 캠페인이 사실 공동의 열정이다. 공통의 연민이 모여서 캠페인이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종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분리 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태국에서는 기독교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 분들께서도 불교의 아이디어를 배워갑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함께 협력을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의 신앙과 무슬림 신앙을 이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친구이고 한 가족으로 봅니다. 인류의 한 가족이랄 생각을 합니다. 이 팬데믹 시기에 있어 가끔씩 종교적 소속은 잊어버리고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종교에서 믿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태국에서 구체적인 많은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종교계에서 서로 다른 두 종교가 협력하는 것을 자주 목도했습니다.

쿠니히코 테라와사: 감사합니다. 정말 구체적인 캠페인에 기반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통찰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팬데믹이 많은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는 또한 훌륭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종교가 함께 신뢰를 구축하고 사람들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카 총

장님이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인간을 사람들의 삶을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고 상호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레오 교수님과 샤카 총장님께서 두 분 다 교육자이신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젊은 세대,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이러한 종교 간의 연결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샤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래세대는 개발, 기술 등 굉장히 다양한 트렌트가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종교에서 멀어지려 합니다. 연구,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움과는 다릅니다. 미래세대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미래세대가 종교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미래세대가 가진 오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종교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종교와 인간성을 다루어야 합니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이라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휴먼이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휴먼,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고 외웁니다. 남아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하드디스크를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서 업데이트의 알파벳 U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아이디어도 여기서 나옵니다. 느낌을 받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자료가 있어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인지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종교는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정신세계가 필요합니다. 내 정신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저는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N을 논하고 싶습니다. 네트워킹의 N입니다. 어느수준의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인간간의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쿠니히코 테라와사: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레오 루페비르 박사님 제 질문을 들으셨나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청중 분들 중에 본인이 크리스찬이며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을 기다리면서 교육자이신 레오박사님, 혹시 미래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계신가요? 팬데믹 이후에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할까요?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레오 루페비르: 종교 다원주의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학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세대가 종교간 이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단순히 제 학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전통에서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분들로부터 학생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경청할 수 있고, 종교적인 행사들도 마련되어 학생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있다면 학교에서 하나의 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팀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갑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상호존중과 이해를 위한 환경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쿠니히코 테라와사: 청자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세대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많은 격리와 고립, 스트레스와 많은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본 것은 일본학생과 한국학생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우익들이 큰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화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협력 방안에 관련된 예시로 일부 학교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불교 교육생들, 기독교 교육생들에 대한 각각의 종교에 대한 전통, 아가페나 캠페션 정신을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융합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캠페션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 자신의 열정을 어떻게 공통의 열정으로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우리'자체를 주체로 둡니다. 그러나 이 캠페션의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캠페션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것이 있는데, 에로스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이유 없이 베푸는 것. 관용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선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관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캠페션과 아가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레오 교수님이 말씀했다시피,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르침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말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도전과제이자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샤카 총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종교에 관련하여 말씀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 종교성이 더욱더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레오 교수님! 기술종교(Techno Religion)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레오 르페뷔르: AI 인공지능, 조지타운에 행사가 있었고, 프란체스카 교황님이 우려하신 것은 기술이 규칙을 다 지배해 버리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변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학과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술이 우월성을 너무 가져버리면 우리의 경제시스템이 이것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일부 소수만 혜택을 받고 수백 만 명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중심적인 사회의 위험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 기술세계는 많은 공동체들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는 새로운 많은 파괴현상들을 겪고 있는데, 이 기술이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불교에서도 3도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독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류의 바른 덕목을 향해간다면 인류 사회를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세계화된 경제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이익의 착취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점점 신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데, 인간이 시스템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체계가 이러한 상황인데, 팬데믹 때문에 변화가 생기고 공동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말씀하셨다시피 마치 기독교의 사회주의처럼 종교에도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짚어주셨습니다. 샤카 총장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샤카: 우리가 자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누가 만들었는지 등등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무엇인가요? 발전을 했고, 도덕이라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또 어떠한가요? 와해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에도 종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도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종교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와 기술 그리고 가이던스(지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불교, 기독교, 경제적인 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컴패션에 새로운 경제적인 시스템의 기반을 두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공동체, 경제적인 체계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크리스찬의 역할에 대해 언급 한바가 있습니다. 불교전통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병자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고 싶었습니다.

테라사와 쿠니히코: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시간이 없는데, 행동을 취해야하는데, 지속가능한 미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종교는 그렇게 해야 한다면 대해 간략한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UN SDG를 보면 인류가 아닌 경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SDG도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르마와 경제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사실 다르마, 법은 지속가능성과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라틴어 어원을 보시면 지속가능성과 결국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균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레오 르페뷔르: 글라스코에서 있었던 유엔컨퍼런스가 기억이 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종교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종교계와 과학계의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샤카 총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력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무너질 것입니다. 경고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모였을까요? 바로 이 방향성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해나갈 수 있느냐. 이때 다른 말을 생각해 보게 되고 지속가능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테라사와 쿠니히코: 종교간 대화, 연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초월한 종교간 연합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연대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지속가능성을 바란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 할까요. 연대가 있어야 합니다. 종교간 국가를 초월한 연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세션 1. 평화대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더 나은 회복”

*유엔에서 제시한 올해의 세계평화의 날 주제



수잔 에니스
호주종교인평화회의의 사무총장



조니 칼리
Kosmos Journal 유엔대표



요 상추
세계불교도우의회 상임위원



박도연
원불교 유엔사무소 부소장

제40주년 유엔세계평화의날 기념 <평화대담>

(좌장) 수잔 에니스

(패널) 조니 칼리, 요 상추, 박도연

수잔 에니스: 모두 환영합니다. 패널 여러분, 청중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사드립니다.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으셨을텐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세 분의 연사분을 모시고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사 분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 말씀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평화대담, 그리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더 나은 회복이라는 주제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든 종교는 평화에 대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평화는 안에 있는 평화가 있고 밖에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 그리고 사회의 니즈를 파악하고 알아야 합니다. 대담은 담론은 이 균형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대화는 공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그리고 여러 국가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인지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평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올라갔습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간에 더 많은 인식 제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하나요? 와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5% 미만이 코로나 관련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어떤지요? 기후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 친구이기도 한 다림 포브스 교수님께서도 평화 이해에 대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화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느낌, 생각, 그리고 행동입니다. 이 세가지 모두 필요한 겁니다. 특히, 지금 중요합니다. 평화와 사람, 평화와 환경, 그 중요성은 더 상승하고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소개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낌, 생각, 행동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저와 같은 분야의 사람들도 그럴겠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녹록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평화에 대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제무적인 환경적인 행동이란 어떤 것일까요? 다시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소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잔 에니스: 네, 그러면은 보다 실무적인 차원으로 넘어 가자면요, 각 연사 분들은 10분간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청중 여러분,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션을 마무리할

때 제 10분 간의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청해드립니다. 10분 간 발표를 듣고 질문을 듣고 또 다른 발표로 넘어가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을 마무리할 때는 세 분의 연사 분들에게 모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가이드를 보니까 원래 모니카 윌라드 대표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오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구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사 분을 소개하자면요, 오늘 조니 칼리 코스모스 저널(Kosmos Journal) 유엔 대표님께서 계십니다.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칼리 박사님께서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리더십이 있으며 문화 발전과 계발에 힘써오셨습니다. 여기서 박사님께서서는 고유한 그리고 폭넓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원에서 대학, 유엔까지 여러 무대에서 활약해오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엔의 주요 그룹에서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엔 소속으로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유엔의 종교NGO위원회에서도 힘써 주셨습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저술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키워달라는 메시지를 방금 확인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칼리 박사님께서서는 많은 저술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보이지 않는 요소에 대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코스모스 저널에도 글을 게재해주셨습니다. 칼리 박사님께서서는 또한 학위를 가지고 계시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종교적으로 또한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칼리 박사님, 음소거를 해제해주시고 발제를 시작해주시겠습니까? 발제 후에 질문 받겠습니다.

조니 칼리: 에니스님 감사합니다. 오늘 글로벌 시민의식에 뉴노멀에 대해 생각해보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실, 뭐 글로벌 시민이라는 여건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글로벌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하나의 의식으로서 모든 만물이 온전히 살아가고 또 내적인, 외적인 평화를 이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집단적인 뉴노멀의 아이디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관계와 자유, 또 행복에 가치를 두고 있죠. 글로벌 시민의식의 이 개념은 정말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더 나은 세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더 질문하고 또 그 방법과 수단 그 영역도 제경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영역은 공공의 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세계시민의식은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가치관과 공공의 선이 핵심의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시민의식과는 다릅니다. 글로벌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고 세계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방식, 또 우리의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상호의존성이 있고 우리가 공동의 권리를 보고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또 우리의 웰빙을 위한 개념입니다. 또 이 세계시민의식은 하나의 방법과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을 구축하고 새로운 규범과 정책과 관행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더욱더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실천주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염이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글로벌 시민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을 수용해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방식, 양심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각각의 개인과 모두가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또 상호연결된 삶을 살아간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이제 실천주의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이는 그런 행동이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개념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식과 의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문제를 고치고 극복해나가는 것도 있지만 행복하고 안전한 글로벌 시민이라는 것은 이 노멀의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뉴노멀에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 시민은 단순히 이 실천주의와 행동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인 그 기반을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 시민의 뉴노멀의 시대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시 더 나은 회복을 구축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럼 왜 더 나은 회복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할까요? 팬데믹 이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 생각해봐야하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기능하지 못했던 그런 규범들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민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No라고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이 엄청난 이 기회, 전례없는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새롭게 과감하게 대담하게 어떻게 새로운 것을 예스라고 할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합니다. 세계시민의식은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의식과 양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속할 수 없는 그 노멀의 규범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해서 우리의 규범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하얀색 공간들이 각각 블록 안에 보이시죠? 이 가운데 공간들이 바로 세계 시민 의식입니다. 이 맥락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각각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시민의식의 존재의 방식으로 생각할수도 있고 또 집단적인 의식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십년동안 20~30년 동안 이제 새로운 세계시민의식, 이 의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만 명의 이 개인들이 오랜

기간동안 느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의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의 의식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제 오늘 주요 메시지고요. 이 세계 시민의식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적용하고 새로운 방식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계시민의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고치고 극복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도주의 문제는 일단 이 어떤 양심의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완화시킬 때 똑같은 사고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체제 안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세계시민의식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국제적인 표준과 도덕과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도덕과 윤리적인 양심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계시민의식의 핵심인데요. 이 의식과 양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양심이 바로 근본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촉매제가 모든 것에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이 세계 시민의식의 이 양심은 우리 자신을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두 상호연결 되고 의존되어 있다는 의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힘 있고 또 새로운 방식의 의사결정 방식이 될 것입니다. 세계시민의식은 모든 종교 가르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토착적인 지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시민의식에 있어서 발전이 느린 것은 이런 토착전통과 종교전통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훌륭한 의식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한 99%~100% 많은 이 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 지혜에 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계시민의식에 기반 한 세상을 구축하려면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세계 시민의식은 단순히 그런 지성적인 관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원하는 그 일치 연하되는 그 목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 시민의식은 이분법적인 의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경제나 정치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이 다 다르다. 이것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인적인 관점을 도입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빈곤 또한 경제적인 불평등이 같은 양심에 외기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

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문명, 영적인 문명이 바로 우리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같은 보편적인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해줍니다. 우리의 이 양심과 의식을 연결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문화를 구축할 때 우리의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문화가 구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노멀이라고 생각했던 규범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를 두고 있던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좀 더 이 정확한 이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계시민의식을 발전할 때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때, 지금 우리의 시스템이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정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표현하고 어떠한 이들은 표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시민의식은 이것에 원칙을 위반하는 원칙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7가지 세계시민의식의 원칙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계 시민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만물이고 모두가 이 지구의 존재들과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계 시민인 것은 공동의 인류에 속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인 정책 모든 것이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계시민인 것은 우리가 세계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시민인 것은 평화에 뿌리를 더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대함을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행동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시민인 것은 사회적인 새로운 구조들, 그 누구에게도 뺏아갈 수 있는 안정과 행복과 웰빙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시민인 것은 부상하고 있는 세계관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가치관, 새로운 패러다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모든 세계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세계 시민의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잔 에니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질문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질문을 하자면요, 종교 믿음의 공동체를 봤을 때 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계시민의식에 있어서 믿음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조니 칼라: 저도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유엔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활동을 서둘러

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습니다. 많은 프로젝트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좋은 프로젝트 많이 있죠. 그런데 좀더 깊게 들여다봐야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봐야합니다. 네 잠깐만, 제가 오디오를 조정하겠습니다.

혹시 울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의식과 양심을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역에서 종교는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깊은 부분을 못 보게 됩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원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우리가 배운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생각해봐야합니다.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때 문화적인 맥락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더 깊은 영적인 측면을 살펴봐야한다고 봅니다.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깊은 측면도 알아봐야합니다.

수잔 에니스: 흥미로운 답변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유엔에서 맡은 역할이 무척 방대하시잖아요, 혹시 영적인 방법에 있어서 일종의 관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영적인 가치를 원치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가치, 환경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가치관에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비한 목소리도 중요하죠. 오스트리아에서도 관련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니 칼라: 네 가치, 네 중요하죠. 만들 수 있는 것과 만들 수 없는 것을 연결하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 중도적인 것, 인간, 이 모든 것들을 구축하는 가치가 뭔지 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문화를 볼 때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진화를 봅니다. 이때 가치에 진화를 봅니다. 7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층이 있는 거죠.

조직마다 이제 재정적인 상태는 다를 텐데요. 일단 7번째 층이 보편적이 더 큰 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스펙트럼을 보시면요. 여러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의 수준도 다양하고요. 조직을 살펴볼 때 유엔에서 볼 때 좀 더 보시면요, 여러 도시, 여러 국가, 여러 다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보세요. 사회, 경제적인 지표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가치의 스펙트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금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1순위는 아니고 전체 스펙트럼이 더 순위가 높겠죠. 이때,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할지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일들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치를 논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나누는 선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 가치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것도 있고 종교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편적 가치라고 봅니다.

개인의 가치도 있지만 보편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진전해야하고요, 여기서 세계시민의식이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배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어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수잔 에니스: 감사합니다. 칼리님.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혹시 확인하시고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질문이 더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요상추 위원님 계실까요? 교수님, 지금 접속해 계시나요?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상추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잘 발음했는지 모르겠네요. 중국문화대학교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버클리 콜롬비아 대학의 펠로우이십니다. 세계불교도우회 상임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세계불교도우회 상임위원이시며, 국제불교연합 유단리에서 회원이십니다. 또한 국제불교네트워크 방콕에서 자문회를 맡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홀리파크 타이페이에서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타이페이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요상추: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불교 신자로서 많은 유용한 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19 도전과제에 마주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세계적인 관점이 있고 종교적인 관점이 있는데 지금 잘 보이실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두 가지 영역은 이제 사적인,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집단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볼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깨우침이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마음챙김 호흡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현대 시대에서 틱낫한 스님이 계십니다. 틱낫한 스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챙김 호흡을 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잘 들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틱낫한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챙김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호흡법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마음챙김 호흡은 이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계속 이런 것을 지속을 합니다. 마음챙김 호흡법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많이 유용한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라 쉽게 수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호흡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불교 스님을 뵈는데 불교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챙김 미소와 마음챙김 호흡을 같이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계속 미소를 짓고, 계속 행복한 마음을 가져가는 것, 행복한 정신을 가져가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19 극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을 하는 것임에도 사랑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돕고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태국에서 스님들이 단순히 탁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보편적인 사랑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 코로나 19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화를 쉽게 내는 것 같습니다. 욕하는 것이 생기고 서로 소리치고 대화를 할 때 분노합니다. 비폭력적인 소통방법이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19에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햇빛을 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루 1시간, 일을 하거나 자연에 나가서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받고요, 긍정적인 효과를 자연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즐겨주세요. 그러면 좋은 기운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기운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이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르마 법전을 하실 때 마야 교전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우침을 얻으셨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 여러 가지 많은 정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깨우침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40:16)

그래서 이 경전에 보시면 정말 많은 정령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불교에 있어서 코로나 19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영이고 정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있는 자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좀 더 이해해달라는 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19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19를 정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정령들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19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도 되는 시간 안에 다시 이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종교 실천자로서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더 나은 상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집단적인 노력입니다. 사회적인 노력입니다. 사회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입니다. 제가 경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경전이었습니다. 2세기에 들어온 경전이었던 것 같은데 타마스투라에서 나온 것

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중국어로 따뭇자 스님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중국에 오신 스님이고 경전을 번역해주셨습니다. 60권의 경전이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저희가 아무산트라 수트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어 번역을 마쳤고요. 또, 번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산스크리트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방식, 지금 매일매일 사람들이 에어컨을 사용하고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우리가 함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오늘과 같은 만남입니다. 원불교와의 만남, 중요합니다. 한국은 20세기에 어땠나요? 89년도에 하나의 책이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도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지구와 그리고 우리의 몸에 대한 표현입니다. 신도불이를 한국어로 제가 발음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맞게 발음을 하고 있나요?

와 정말요? 정말 좋은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신도불이.

한국이 유일할 겁니다. 이 신도불이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로컬 지역을 봐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김미희 차문화전문가와 친합니다. 유기적인 움직임에도 큰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일찍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방향성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불이 움직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팬데믹의 맥락을 같이 고민해봅시다. 우리가 신도불이의 원칙을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을 잘 따른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한국에서 주치를 해주셨는데요. 원불교의 중요성을 저는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기원하였는지, 신도불이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가르쳐주시기도 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가톨릭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만남을 가진거죠.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님과 불교 스님께서 만남을 가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성당에서 연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많은 감동을 느꼈다고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 침묵의 힘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침묵의 에너지가 있구나, 평화의 에너지가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게 종교적 대담, 대화를 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깊은 의미가 있고요. 불교계에서 무슬림계와 대화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중

교적인 대화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더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실용적인 자세를 취해야합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말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 역시 공유되어야 합니다. INEB에 멤버라고 보았을 때 2년마다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2년마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열리고 저희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모입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종교적 대화를 개선시키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 많이 실천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제 이전 연사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셔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그 이전 연사 분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해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카 총장님께서 SDG에 대해서 관련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의가 나올 때 SDG의 이미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SDG도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저는 이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잔 에니스: 특히, 다섯가지 분야로 나눠주셔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에 대해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청중의 질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호흡 그리고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걸까요? 이 팬데믹 시국에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코멘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상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질문인가요? 아니면 모두에게 주신 질문인가요?

수잔 에니스: 상임위원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요 상추: 네, 알겠습니다. 호흡이라는 게 사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르침이 나오죠. 16가지 정도의 스텝이 있습니다. 일단, 호흡을 할 때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서두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웃어야 합니다. 미소를 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흡을 하는거죠. 숨을 쉽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느리지만 클리어하게.

수잔 에니스: 아 제 질문은, 이런 주제에 열린 마음을 가지지 않은 분들에 대한 거였습니다.

요 상추: 아 잘 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수잔 에니스: 제 질문은 이 불교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남을 수 있을까요?

요 상추: 글썄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나눠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가 실제로 뭘 했는지를 일상적으로 내가 뭘 하고 사는지를 나눠야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요 사람이 평화롭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평화로울까? 어떻게 사는 걸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수잔 에니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연사 분을 모시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연사 분은 박도연 원불교 유엔사무소 부소장님이십니다. 들리시나요? 조금 목소리가 작긴 합니다. 더 올라가지를 않네요. 하지만 들립니다. 제가 선생님처럼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불교 유엔사무소 부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맨해튼에서 맨해튼 교당에 계시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관련 일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힘써오셨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승각 관련 일을 해오셨습니다. 안에 있는 지혜와 캠페인을 나누고 평화와 그리고 존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원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해오시면서 적극적으로 종교간 개화에 임하고 계십니다. 또한 협력을 해오셨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다양한 종교 간에 존중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불교 아이디어, 자유와 행복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98년도에 트레이닝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익산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원불교를 공부하셨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인가요?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제 부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도연: 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인사드립니다. 다들 어디 계시는지요? 에니스 박사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노고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연사 분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전 연사 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신토불이 언급을 하셔서 많이 놀랐어요. 리마인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상추: 감사합니다.

박도연: 이전 연사 분께서 잘 말씀 해 주셨지 만요. 우리는 계속되는 팬데믹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삶의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죠.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게에서, 교회에서, 사원에서, 교당에서, 모스크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위협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응해야 하고 새로 사고방식, 업무방식, 그리고 연결방식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맛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직접 겪어보았을 겁니다. 어려웠죠. 녹록치 않았습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다. 많은 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많은 분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건강문제, 재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종식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많은 스트

레스를 떠안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이슈인가? 아니에요. 이슈 많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갈 이슈 많죠. 인종 관련 문제, 정의의 부재, 경제적 불평등, 혐오 범죄, 기후 위기, 가짜 뉴스 뭐 언급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문제, 도전 과제는 개인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겐 이유가 있어요. 평화가 없을 근거가 있어요. 평화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은 너무 미친 것 같다. 평화를 찾기 어렵다. 사실, 그 이유는 많습니다. 평화롭지 않은 삶을 살 이유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평화를 찾기 어려운 상황 많습니다. 적대감, 분열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평화를 찾기 힘듭니다.

평화를 채워야 할 사람들을 저는 보았어요. 무한한 지혜 그리고 캠페인을 지닌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불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대중사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대중사님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나의 문제가 조금더 평화롭다면 어떨까요? 깨달음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소태산 대중사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지만요. 한국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생애를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대중사의 삶이 저보다 더 쉬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문제가 더 적다면 어떨지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제가 문제와 도전과제는 결국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붓다께서도 고성제에 대해서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죠.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성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후퇴해야 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괴로움은 성장의 이유입니다. 평화의 더 큰 이유를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 고축에 힘쓴다면 어떨까요? 일단 우리는 내 안의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평화, 어느 곳에서라도 찾을 수 있는 평화 있어야 합니다. 이너 피스라고 하죠. 사실 이너 피스라고 하는 말은 클리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또다른 어떤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평화 고축을 시작할 수 있는 말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너피스를 내 안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요, 사회 평화 국가의 평화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안의 평화 바깥의 평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꼭 하나가 있어야 나머지도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호 연결성과도 같이 생각해봅시다. 불교적 전통을 상호 연결성입니다. 팬데믹 시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직접적, 간접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원칙을, 상호 연결성을 적용할 때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하나의 지구촌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문제 참 많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통해서 여러 이슈를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 연사 분들도 말씀하셨죠. 17개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설계한 목표고요. 일종의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더 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두를 위해서 만들 수 있게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기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환경 파괴, 그리고 평화와 정의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도전과제 목록이 있는거죠. 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마치, 독립적인 따로따로 있는 문제인 것 처럼요. 하지만 보세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기아 그리고 빈곤을 퇴치하는 것, 맞서싸우는 것 평화구축입니다. 결국 이게 평화 구축입니다.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평화 구축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찾는 것도 평화 구축입니다. 책임감 있는 소비도 평화 구축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도 평화 구축입니다. 정의에 대한 활동도 평화 구축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호 의존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칼리 박사님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지만요. 글로벌 시민의식은 새롭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 역시 우리가 공유하는 것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상호연결성,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고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기회가 나옵니다. 평화 구축에 평화를 만드는 것을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하나의 조직이나 하나의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코가 들리는데요. 마치, 제 연설을 더 강조해서 전달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 평화라는 목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공동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공동의 공유하는 지혜, 지식 필요합니다. 협업이 필요합니다. 같이 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 다양한 필드에서 모여야 합니다. 에니스 박사님께서 처음 말씀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평화를 향한 공약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칼리 박사님께서 보편적 가치 언급하셨고, 상임위원님께서도 공동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웰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워딩이 있겠죠. 그런데 우주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금 불교적인 표현을 써보자면 다양한 손가락이 모두 달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마치 같은 목표를 가진 것처럼, 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 인력도 존재하고 리소스

도 자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순간도 이렇게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을 안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수잔 에니스: 감사합니다. 박도연 부소장님, 개인적이고 또 여러 가지 광범위한 말씀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고 패널을 오픈해서 이제 모든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집단적인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집단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다른 신앙과 다른 종교와 어떻게 협력했는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도연: 네, 제 생각에 모든 패널분들 연사 분들 그리고 참석자 분들 저희가 모두 집단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원불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 영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불교의 가르침이 정말 모든 이 생명체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원불교계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또 하고있는 작업들 다른 종교와 NGO, 유엔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처럼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주최할 수도 있고요. 다른 종교의 전통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기후 문제나 인권 문제나 여성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한, 가능한 한 함께 서로를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해줄 수가 있습니다. 집단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가끔씩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 일상속에서 우리 매일매일 삶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 행사가 집단적인 노력의 한 가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지금 세계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놀라운 것 같습니다. 줌을 통해서 또 기술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1년 전, 몇 년 전에도 상상이나 했었어요? 유엔 차원뿐만 아니라 현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행사들을 좀 더 많이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목표에 대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19가 이 목표에 많은 발전사항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한가지, 저희가 일상 속에서 생각할 때 코로나 팬데믹이 많은 도전과제

를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해를 인류에 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생명들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험해나가면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교 가르침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악하다고 구분지을 순 없습니다.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악한 것은 없다는 뜻이죠. 은혜에서 해가 나오고 해 속에서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거, 이거는 악한거, 이거는 선한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그것을 누가 정하나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즉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물론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도 보호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뼈아프게 이것을 배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제가 종교인으로서 종교수행자로서 우리가 정말 해야할 것은 이런 도전과제 힘든 시기에 있어서 개인적인 책임이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저개발 지역들, 안타깝게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더 낮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주력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개인으로서 또 원불교 공동체에서도 주로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잔 에니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을 오픈해서 모든 분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질문을 하셔도 되고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패널 분들을 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감사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통역사 분들에게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나기 전에 먼저 감사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가끔씩 제가 잊어버려서요. 이제 20분 정도 있는데 세 분의 패널 분들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멘트를 해도 될까요? 또는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문을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질문은 정말 좋았어요. 이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

을 해주셨고, 이 팬데믹이 정말 안타까운 도전과제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말씀해주신 질문이 굉장히 좋았는데 다른 연사 분들도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을 기억하시는지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칼리님 혹시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요 상임위원님도 말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조니 칼라: 어느 분 먼저 말하면 될까요?

수잔 에니스: 요상추 상임위원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아 칼리님 먼저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조니 칼라: 도연 소장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멀로 알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노멀이 아니죠. 이제 새로운 방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함께 연합해서 협력해서 sdg를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라는 조직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세레머니입니다. 많은 토착민들, 원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가끔씩 부족에서 아마존 정글에서 호주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길도를 이제 릴레이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미국 남서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바톤을 받아서 또 이제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면들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연합된 영적인 세레머니 하나의 아마존 정글에 있었던 불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함께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이고 정말 많은 강력한 힘을 가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고통스러운 부분들도 겪어야 하겠지만 특히 지금 이 사고 세계에서는 다른 국가들만큼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또 진화적인 의식, 의식의 변화, 이제 적자생존이 통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이 적자가 누군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죠. 이 적자 생존에서 이 적자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자연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혼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을 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협력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가치관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 전 세계가 합의한 목표들입니다. 17개 목표 전세계가 같이 동의한 목표입니다. 정말 엄청난 혁신이죠. 인권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이런 관점이 있는데, 가치관이 있는데, 윤리적인 것들 이것을 한 데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sdg,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빈곤 종식, 기후 정의 행동, 강력한 제도를 만들기 여러 가지 목표가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음과 양, 또 집단적인 것,

개인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보자면 이 17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루고 각각의 타겟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종교적인 지성과 지혜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수 시대에 걸친 이 종교적인 지혜와 지성을 결집시켜서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잔 에니스: 요 상임위원님,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 상추 상임위원님.

요 상추: 지금 제 휴대폰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수잔 에니스: 채팅 박스에 타이핑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술팀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팀에서 지금 교수님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볼까요? 아직 질문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칼리님께서 행동, 실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서도 생각을 해보면 중심이 없는 행동, 어떤 영적인 분별 없는 행동에는 어떤 다른 결과, 의도치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경험해보셨는지요?

조니 칼라: 네 좋은 사람, 좋은 행동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고 있죠. 제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혹은 변화시키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트랩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제 참여가 중요합니다. 배가 고픈 아이들이 있으면 제 식량을 제공하게 되고 여러 가지 행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보시면요. 우리가 의식과 양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에코가 들리네요. 우리가 여러 영역을 보는데요. 제가 책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생각 아이디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할 때 심각한 것들을 관리하고 해결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올바른 요소를 찾고 여러 요인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 프로젝트가 있고 자금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시면요.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이지나요?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빈곤 관련 통계, 나쁜 결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했는데 말이죠. 제가 봤을 때 더 깊은 시스템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볼 때, 이게 정말 충격을 하는 건지 봐야 됩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요. 장기적인 변화가 이뤄지나요? 그건 흔치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물론 있죠. 하지만 99% 다 봐야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영적인 영역이 있고 의식과 양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일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시간 없으면 시간을 내야합니다. 시간 요구해야합니다. 의식과 양심의 영역을 들여다봐야합니다. 저는 여기서 변화가 나온다

라고 봅니다. 여기서 필요한 변화가 나오고 사회적인 서비스가 바뀌고요, 시간이 할애되는 부분입니다. 전문성입니다. 이게 결국, 영적인 내용과 관련된 전문성이죠. 더 깊은 전문성을 지금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영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의 전문성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답론을 보면 어떤 미션하고 계세요? 어떤 행동하고 계세요? 어떤 프로젝트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부입니다. 10% 아니 5%일까요? 보이지 않는 95%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식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메타피직스의 영역입니다. 과학적인 측면도 있죠. 우리는 관련 교육도 해야합니다.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들여다 봐야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지 더 자세히 깊게 봐야겠습니다.

수잔 에니스: 네 감사합니다. 요 상임위원님, 채팅창 확인하셨습니다까? 질문이 있는데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영적인 공간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냐 라는 내용인 듯합니다.

요 상추: 제가 후에 채팅창을 통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수잔 에니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에 대한 코멘트 있으신가요?

조니 칼라: 네 저같은 경우에는 연사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랬지만 다른 연사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지견이 확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잔 에니스: 혹시 지속 가능 발전목표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으신지요?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SDG가 이로 인해서 늦춰지고 있나요? 언급해주시겠습니까?

요 상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게 아니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더 깊은 실천이 필요하고 이때 바르나 살펴봐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잔 에니스: 네 감사합니다. 박도연 부소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코멘트해주시겠어요?

박도연: 네 일단 저는 칼리 박사님 그리고 요 상임위원님이 언급해주신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영적인 연습인 것 같아요 가르침 그 자체죠. 우리가 물론 겪는 상황도 있습니다. 칼리 박사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우리는 빠르게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연습을 하고 종교에서 왔잖아요. 먼저 그래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그림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평화가 지혜가 있는 거죠. 정신세계 안에요. 이걸 봤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더 캠페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때 더 현명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저는 근본적인 이해라고 봅니다. 상호연결성을 이해하는 거죠. 더 여러 가지 종교적 전통을 살펴볼게 됩니다. 불교도 있겠지만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필수적인 가르침을 보시면요 다양한 종교를 보시면요 저는 보

편적인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중앙을 중심을 중심적 가치를 지킨다면요, 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항상 도전과제는 있습니다. 정말 항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렌 켈러였는지 다른 사람이었는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고 괴로움을 뛰어넘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요 상임위원님이 액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그쵸. 우리 사실 속으로는 알고 있죠. 행동을 취하는 것이 결국 열쇠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잔 에니스: 혹시, 질문이 있는 분 계실까요? 요 상임위원님.

요 상추: 아 제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간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종교 내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도 대승불교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역사도 있습니다. 종교 간 대화도, 종교 내 대화도 중요합니다. 수년 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에서도 저는 대답이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같이 일해야 하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진흥해야 한다고 봅니다. 테라와다 불교, 대승 불교 간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도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잔 에니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크리스찬 안에서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슬람 전통, 또 불교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이 세션을 그래서 또 준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질문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연사 분들에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상추 상임위원님, 박도연 부소장님, 조니 칼리 박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지원팀 다시 한 번 지금 보이진 않지만 감사합니다. 모든 주최 측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휴식시간인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입니다. 모두 즐거운 점심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애프터런치를 마시러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션 2. 지식대담

“하나의 세계, 인류는 한 가족을 위한 종교 간 집단지성”



박도광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원장



카토 줄리우스-케이
킹스칼리지-웨스턴대학교 부교수



허석
원광대학교 부교수



이순영
포콜라레운동 종교간대화 고문

종교계 · 학계 지성인들의 대담

(좌장) 박도광

(패널) 줄리우스-케이 카토, 허석, 이순영

허석: 반갑습니다. 발표를 사실 우리 박광수 교수님께서 잠시 오디오 상태로 인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지식대담 세션에서 우리 종교 간의 집단 지성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종교 간 대화를 통한 분열을 매우기 위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그 사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종교 간 대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런 소통의 장이고 지혜를 서로 공유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글로벌화된 다양한 이슈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지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종교적인 지혜로서 이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을 이 시간에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순영 선생님께서 네 잠시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대화에서 어떻게 보면 포콜라레 운동을 통해서 종교 간 대화와 함께 화합 그리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오랫동안 역할을 해오셨던 걸로 제가 들어 알고 있는데요. 좀 이 자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 이 세션의 제목이 어떻게 세계를 하나로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에 대한 그런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고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쪽에서 보면은 이미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지구 세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구촌이라든지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세계적인 문제가 결국은 각자의 문제가 각자가 그 문제점을 함께 대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 시대에 여러 가지 발전이라는 거 과학 기술 디지털 문화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모습도 함께 대면하게 되는데요. 이런 면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때 그 원인에서 현세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여기서 무슨 그런 예를 얘기하지 않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 심증 원인에는 인간 양심이 둔해진 것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그리고 종교적인 가치들을 잃어버린 것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종교 간 대화를 추진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분열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방향이 어떤 면에서 이것이 조금 역설적인 분일 수도 있겠지마는 결국은 하나가 되는 세상을 위해서 일치를 향해서 노력하는 모르지만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결론도 내리게 된다는 거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우리가 모두 같이

겪어야 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은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태계에 관한 거라든지 성찰을 촉구했지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성찰을 하고 그다음에 공생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를 문화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많죠. 큰 기관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유엔도 그런 면에서 볼 수 있고 유엔의 상하 기관이라든지 또 종교계를 보면은 세계 기독교회 협의회라고 WCC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향하는 그런 세계 기관이라든지 또 종교계에서 잘 알려진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라든지 또 불교계에서는 세계불교도주의회라는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불교인들의 전 세계 불교인들의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도 또 원불교 대산종사께서 종교연합운동을 한 50여 년 전에 제창하신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 결국은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추구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기관 사회적 기관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위한 그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그 전략은 전략이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종교로부터입니다. 이 종교 역사적인 종교 안에서 보면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안에 각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영신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해내어서 공유해야 된다. 이것을 이것이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콜라레에서도 사실, 이 포콜라레 운동을 아마 처음으로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이태리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2차 대전 중에 시작한 그런 운동인데요. 이것이 가톨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다음에 개신교라든지 이웃종교라든지 심지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다리를 놓으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큰 운동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한 190여 개국에 파견되어 있고요. 창설자가 '끼아라 루박'이라고 하는데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받았는데 그때 수상 목적과 수상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민족과 종교의 차이가 흔히 폭력적 분쟁을 초래하는 이 시대에 포콜라레 운동이 사람들 사이 세대 사회 계층 민족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콜라레에서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역시 이제 아무래도 가톨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70여 년 전에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기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즉 모든 일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을 한다는 것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류 가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일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허석: 우리 포콜라레 운동 190여 개국과 함께 이렇게 종교 연합

활동을 통해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순영 선생님 말씀을 먼저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발제를 하신 우리 박광수 교수님의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우리 카토 교수님 말씀은 박광수 교수님 발표 이후에 다시 듣는 걸로 하고 우리 박 교수님께 발표 시간 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박광수 교수님 오디오 상태가 아직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순영 선생님께서 우리 포콜라레 운동 그리고 다양한 종교 연합 기구 활동들이 사실은 정치나 경제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인류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세 가지로 인류 문제를 진단을 해 주셨는데 인간 양심의 문제 그리고 도덕성 타락의 문제 거기에 종교적 가르침이 종교 안팎으로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문제들이런 문제들을 우리 정말 뜻 있는 종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함께 연합해서 그 의미를 되새길 때 이러한 팬데믹 현상으로 발생된 이런 다양한 인류 문명의 문제들이 어떤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성찰의 계기가 되고 발전의 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카토 교수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로 이 지식 나눔의 시간을 하면 좋을지 서두의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카토 줄리우스-케이: 먼저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자정을 넘긴 시간인데요. 제가 기억이 좀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좀 말씀을 끝까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공유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킹스칼리지라는 대학의 교수입니다. 킹스칼리지는 더 큰 대학인 웨스턴 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종교 자원주의 윤리학 영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이 모임의 주제를 받았을 때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것은 정말 흥미롭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종교 간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찰을 시작한 것은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정의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바로 세계관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잘 말하지 않는 것은 세계관이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시작 단계는 어떤지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민족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내 그룹 내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면요. 특히나 현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땐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세계관을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데요. 내 그룹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봅니다.

그룹 바깥의 사람들 이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족이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면요. 그리고 우주 중심적 세계관도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성뿐만이 아닌 겁니다. 환경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다양한 단계를 가지고 발달할 수 있습니다. 왜 세계관을 얘기하냐고요. 우리 종교가 세계관입니다. 궁극적인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동양은 어떤가요 개념이 조금 다를 겁니다. 과시라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궁극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열반 무아 공 여러 가지 측면을 불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보면요. 네 종교와 세계관을 볼 때 단계를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종교적 세계관 발전할 수 있어요. 종교적 세계관은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습니다. 민족 중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가족에게만 내 그룹에게만 주안점을 두는 거겠죠. 하지만 세계 중심적 우주 중심적 세계관도 가능합니다. 종교 간 집단 지성이라는 말을 제가 듣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인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집단 지성을 갖기 위해선 어떤 세계관이 필요할까요. 세계 중심적 우주 중심적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세계 중심 우주 중심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부분의 인류는 민족 중심적인 태세를 취했습니다. 자기 가족 중심이었죠. 자기 국가 중심이었죠. 그리고 자기 종교 커뮤니티에 집중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념치 않았습다. 민족 중심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팬데믹으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 중심적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좁은 가족 부족 국가 종교만을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합니다. 팬데믹 초기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리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토론토에서도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병이 아시아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시아 사람이예요. 저는 필리핀인이기도 하고 일본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일본인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살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산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인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제가 살고 있잖아요. 팬데믹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라고 들었을 때요 이젠 나한테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2020년 3월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었을까요. 코로나가 북미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찰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이 상호 연결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시아 이런 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 북미 지역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작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가끔 너무 자기 이해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분들도 있고 내 그룹에만 집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떤가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말이죠. 내 그룹만 신경 쓰고 내 커뮤니티만 신경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저한테 팬데믹이 뭐냐고 한다면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종교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혹은 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요 세계 중심적 우주 중심적 세계관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코스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저는 제안 사항도 제시합니다. 학생들이 종교 간 이제 집단 지성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관련 페이퍼를 작성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제안사항을 글로 적은 바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책이 보이시는지요.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이 책의 저자입니다. 책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이 움직임도 있습니다. 컴패션(compassion) 관련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카렌 암스트롱의 말에 따르면 모든 종교는 가장 중요한 이 목표이 영적인 전통의 핵심을 강조해야 합니다. 바로 컴패션, 연민이겠죠. 종교에 있어서 이 연민의 정신이 거스른 것이 있다면 거부해야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종교 간 집단 지성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것이 있는데요. 종교 간 집단 지성을 발전하기 위해서 파괴 멘틀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파이어멘터 월드 릴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글로벌 에틱(Global Ethics)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글로벌 윤리라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약속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5개를 공약하고 있는데 비폭력과 삶을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연대의 문화와 정당한 공정한 경제 질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의 문화와 진실한 삶에 대한 헌신입니다. 네 번째는 남녀 간의 평등한 권리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권리와 파트너십 문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에 종교 의회에서 추가된 것인데요. 지속 가능성 문화 왕 지구 돌보기에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윤리 세계 종교 의회에서 채택한 글로벌 윤리가 되겠습니다. 세계 종교 의회의 글로벌 윤리의 다섯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상가와 학자들 철학자들 영적 수행자들의 운동입니다. 이 학자가 작성한 책인데요. 로저 월시 종교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서에서 노조 월시라는 학자는 여러 가지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로 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7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리에서 강조하던 것을 영적인 실천과 관행으로 중점을 옮긴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문서들을 작성을 했었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광: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마이크 테스트가 좀 미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맨 처음에 원불교 학과에 원불교 교무님이신 허석 교수님이 발표를 해 주셨고 그리고 크리스티나 리넘께서 포콜라레 모먼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종교 간 대화 협력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줄리우스 케이 카토 교수님께서 지금 월드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좁은 민족 중심의 그런 세계관 그리고 협소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넘어서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감 많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종교의 핵심 사상은 캠페션이라고 하는 자비 자유로움 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 전체와 모든 생명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이 동양과 서양이 서로가 교류하고 협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명들이 충돌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런 충돌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나 문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은 그런 문명의 충돌과 그리고 문명의 이해와 공존의 시대에 우리는 함께 살고 있고 그 시대를 넘어서 수 있는 길이 과연 뭘까 그리고 문명의 충돌을 넘어서서 상생의 문명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문명사회가 과연 뭘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상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이해를 할 때에 그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문화나 또는 종교의 사상이나 실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이해 단계에서 가토 교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영성에 대한 교리적인 또는 철학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실천적인 그런 영성의 수련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토론자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 작은 민족이나 국가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봅니다.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러나 지금은 세계화 과정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세계가 가까워졌고 오늘도 이와 같이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열린 시대를 살고 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충돌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충돌을 넘어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을 넓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족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인류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자기 종교만을 중시하는 그런 세계관을 넘어서서 인류 중심에서 생명 중심주의로 그리고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서 세계 보편주의로 따라서 세계의 모든 시민 사회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의 패밀리로서 가족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세션에서 토론회 결국은 어떻게 한 가족을 인류를 한 가족으로 삼고 모든 생명을 한 가족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오전에도 토론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중요한 두 분의 김 의원이나 또 유엔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의 기후 문제나 생명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역시 과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핵심 주제는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식인들 또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회를 알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비전들을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집약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지성인들 개인이나 어떤 뛰어난 사람들만의 지성이 아니라 대중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지성 그래서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을 우리가 열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간 대화 운동 그리고 협력 운동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대중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모더레이터 사회자로서 먼저 허석 교수님에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원불교 내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엔과 대등한 UR의 움직임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함께 세상을 위해서 임부와 자본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고 그걸 통해서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제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을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석: 원불교에서는 종교연합운동을 원불교의 3대 지도자이신

대산 김대거 스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이전에 원불교를 창립하셨던 소태산 박중빈 대중사의 깨달음과 그분의 어떤 종교적 이념 그런 것이 종교의 진리는 둘이 아니다. 그리고 모두가 종교와 종교를 넘어선 모든 영역이 함께 화합해서 참 문명 세계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의 바탕에서 원불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의 상징이 원불교가 원불교를 상징하는 동그라미 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이셨던 정산 송규 종사께서도 바로 이 대중사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모든 종교와 교회의 진리는 하나다 그리고 모든 생명과 인종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생명이다. 다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나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모든 구성들의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세상 평화의 세상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세계 인류가 함께 구현해 나가야 될 윤리 세 가지 큰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큰 어떤 가르침의 바탕에서 원불교에서는 종교가 서로 연합을 하고 그리고 종교 간 평화를 통해서 종교 넘어서 이제 종교와 모든 국가나 어떤 다양한 사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사실 그 규모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그 활동에 있어서는 매우 일찍이 종교 연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평화회의 종교자 의회에서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불교 도우회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 종교인 연합회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종교가 서로 연합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와 실천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도광: 네 고맙습니다. 허석 교수님 그리고 포콜라레 미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콜라레 리님은 일생 동안에 포콜라레 크리스티나 리(이순영)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나 리님은 포콜라레 운동에 일생 동안 같이 참여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종교 간 대화와 협력 운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불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 개신교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을 같이 만나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대를 받아서 참여를 해봤는데 너무나 참 좋은 역할을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포콜라레에서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를 위한 말하자면 집단 지성들의 일격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어떠한 피아나 루빈 여사의 어떤 가르침의 바탕에서 그렇게 활동해 오셨는지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 여러 종교인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모으기 위해서 여기서 공통되는 가치가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윤리(Global Ethics)이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황금률이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여러 종교가 다 같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종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하는 바탕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론적으로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예를 들면 우리 포콜라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포콜라레의 영성이라면 이런 영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기는 하지마는 이거를 머릿속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매일의 생활하면서 출산하는 것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런 걸 정말로 한 그리스도 신자가 이걸 자기의 가르침 그러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실천을 한다면 다른 종교인들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교에도 불교에도 자비심이라는 얼마나 그런 큰 가치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함께 나누게 되고 오히려 서로 격려하게 되고 이슬람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슬람 그러면 여러 가지 테러라든지 그런 어려운 것을 생각해 하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그런 말을 되풀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 생활 매일의 활동에서 공유하다가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치를 목표로 하는 그런 여러 종교인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 만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똑같은 종교인들이 일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했을 때에 이루어내는 아름다움이랄까 그 분위기라는 것이 더 깊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단지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물론 각자의 생활 속에서 자기 집 가정에서 자기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되지만은 지금 사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개인적인 그런 영성을 각 종교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만 이런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의미만이 아니라 또한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를 많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얼마 전에 이태리어로 프라텔리투타라는 모진이가 형제라는 그런 문서를 발표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인간에 대한 우리의 비전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거를 알고 해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우해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우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콜라레 경험을 조금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사회적 우회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이 있고 이런 곳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을 바로 이러한 오해, 인간의 형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면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제 이것이 물론 이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것이지만 실천하기는 물론 어려운 것이기도 한데 이런 현 사회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저희 포콜라레에서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정치계나 경제계 어떤 면에서는 아마도 제일 어려운 분야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정치계에서는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시작된 지가 한 20여 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 유럽이나 남아메리카도 한국도 포함해서 한 20여 개국에서 30명 정도의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당도 다르고 정책도 다를 수 있지만은 보편적인 가치는 함께 나눌 수 있으니 까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려운 그래도 느껴질 수 있지만 참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래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평화 생명 정의 자유 자연보호 이런 보편적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자기 정당에 속한 정치인만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정당의 사람들도 다른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이루면서 나가고자 하는 이런 정치 운동인데 결국은 여기서도 정치의 패러다임이 형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것이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한 많은 좋은 결실도 가져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날의 세상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인데 이것도 우리 창설자인 끼아라께서 이분이 한 번은 브라질에 가셨는데 거기 상파울루 도시의 중심부는 굉장히 부유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인민 거기서는 파벨라스라고 하는데요.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불균형을 보면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한 경제라고 지금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로는 사실은 이코노미어 커뮤니티이라고 이 옷이라고 이제 약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힘은 약하고 가난할지라도 우리들의 자본을 토대로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와 이윤을 창출하고 이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이런 제안이 전 세계적으로 반영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회사도 만들어지고 기존 기업들도 동참하면서 지금은 한 860여 개의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기업이 있어요.

또 이탈리아 포르투갈 브라질 가에서는 좀 더 크게 산업단지가 태어나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은 단지 자선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죠. 형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여기서 이 결실을 보면은 이러한 경제사상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도 실현이 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지금 실천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 학술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경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300여 간의 학위 논문이 발표되고 세미나도 하고 있고 이런 면으로 할 때는 여기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여기에 동의해서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은 작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집단적인 지성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기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광: 네 고맙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바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맨 처음에는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가를 같이 먼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각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카토 교수님은 지금 킹스칼리지에 계시고 웨스턴 유니버시티에 계시면서 학생들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종교 간의 대화나 협력을 위해서 다양한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비 정신 그리고 글로벌 에티크에 대한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윤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끝으로 말씀 주셨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의 문제를 실천적인 부분을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 또는 주위에 있는 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떠한 경험들의 세계가 좀 펼쳐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주시면서 또 어려운 점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겸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카토 줄리우스-케이: 네 어려움이 있다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시피 크리스트 종교에서 독트린을 강조하는 바가 큼니다. 기독교 교리를 보시면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의 가르침인가 많은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요 제가 이제 글로벌 윤리 캠페인 자비 이런 것을 강조하면요. 제가 리마인더도 학생들에게 줍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캠페인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길잖아요. 행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믿는 것으로 전환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믿음의 개념에 크게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독트린을 믿어야 한다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전환도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특히 서구권을 보면 그러합니다. 제가 유럽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북미 지역에 살고 있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양면을 다 봤습니다. 유럽도 보고 북미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들을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유감스럽게도 좀 변화가 유감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크리스찬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 중요성이 왜 줄어들고 있는지 제가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종교가 강조한 것이 독트린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에서 독트린을 강조했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영성을 저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도 경험을 추구

합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경험을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신성이 있는 영성이 있는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윤리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윤리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정한 움직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감을 받은 성스러운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내재되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박도광: 정말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의 종교 문화 그리고 역사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종교의 문화나 역사 그리고 또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이해하게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콜렉티브 인텔리전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지성의 역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간의 대화나 협력 운동을 참여를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깊게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가능한 대로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것이 한계가 분명히 우리들이 안고 있죠 한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1919년도 3월 1일에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에 다양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독립운동에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민족의 다양한 문제 직면한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에 1962년도 그리고 63년도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국 종교인 평화의 라든지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있어서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 간의 모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랜 세월 동안의 종교 간의 대화와 또 협력 운동이 상충복종 종교 지도자들 또는 아주 특별하게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소수 그룹에 많이 전가해 왔지 일반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콜렉티브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가 그리고 어떤 그런 콜렉티브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확산시킬 건가 이 부분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 가르침에서 바탕으로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금 순서를 바꿔서 크리스티나 리님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또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 결국은 이러한 종교적인 요소에는 사실 종교 간 대화

라든지 협력 이런 표현이 꽤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보급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은 저희 포콜라레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큰 규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예를 들면 이번 대회 같은 것도요. 이 안에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듣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말씀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런 대회에서 한 번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이런 거를 같이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 가지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은 조금 일이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한 담화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든지 책을 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보존해갖고 전파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책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신뢰가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되도록이면은 협력해서 일하는 것 그러니까는 저의 경우를 말하면은 포콜라레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톨릭에 속하는 다른 단체 개신교 단체 다른 종교하고도 함께 협력을 할 때에 이것이 우리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요새 좀 많이 그런 표현을 쓰죠. 시너지로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우리 그룹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지 않고 함께 일하는 거 이런 면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기회를 만들고 또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만들어 갖고 되도록이면은 이런 것을 널리 펼치게 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교회는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종교 간 대화라고 할지라도 영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특별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생태계의 문제라든지 가난한 사람의 문제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각 종교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함께 의논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도광: 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포콜라레 본부를 가보고 또 보클라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피아 대학을 가봤을 때에 저는 조금 감동적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오콜라레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톨릭을 믿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불교수님 중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었고요 그러면서 소피아 대학에는 불교 신자인 대학원생이 소피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봤었습니다. 종교 간의 어떤 대화나 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런 확장되어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게 됐을 때에 그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집단 지성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허석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불교 내에서도 오늘 이와 같은 이제 행사들을 해 나가고 있고 종교 간 대화와 협력 운동도 역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

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런 세미나나 또는 어떤 이런 모임들이 1년에 한 차례 내지 많이 하게 되면은 두 차례 정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하는 이런 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 오긴 하지만 그것이 확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면 허석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네 지금 박 교수님께서 이 질문을 해 주신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이제 확장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결국에는 세계의 평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인들만의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너무 확장시켜서 정말 종교를 넘어선 많은 사람들까지 함께하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현재 지금 이제 원불교도 그렇고요. 원불교의 이념이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들의 이런 활동들이 종교 지도자 그리고 종교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리고 종교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 엘리트들의 그런 운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제 종교 청년들이 함께 이런 종교 연합운동에 함께해서 세미나도 하고 다른 종교 청년들과 함께 만나서 2박 3일로 함께 이렇게 종교 성직지도 찾아가고 함께 마음공부를 하는 그런 활동들도 함께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종교 간 대화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런 대화의 의제 설정에 있어서 매우 실천적이고 생활 친화적인 의제 설정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사회의 이슈를 담고 있는 예를 들면 한국에 있어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문제 아니면 인권에 대한 문제 아니면 지금 요즘에 젊은 이들의 반응 어떤 마음에 대한 문제 이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그러니까 종교인들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친밀하게 발굴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상이나 마음공부를 통해서 아까 실천적인 어떤 지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지성을 발전시키는 부분과 함께 영상과 마음공부 각 종교의 기도나 어떤 신앙적인 것을 함께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결부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간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합 예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와 학술과 그리고 종교적 수행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어떤 만남의 장이 되었을 때 이것이 종교 엘리트들 그러니까 종교 어떤 성직자들과 종교 학자들만의 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교 신도들 나아가서는 일반인들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도광: 아주 네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신앙하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배우면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큰 과제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도 예를 들면서 조금 이따 카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국 종교인 평화의 사무부총장을 해 나갈 때에 개신교의 목사님 그리고 가톨릭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원불교 교무님 그리고 다양한 성직자들이 함께 그런 운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2박 3일 정도를 다른 종교에 머물면서 수행이나 신앙에 의뢰에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불교 송강사에 갔을 때에 불교 스님들 개신교 신자들이 하나님 믿으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 배낭을 뺐는단지 또는 염주 목걸이를 뺏어버린다든지 이런 사례를 얘기를 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개신교계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면 고충을 얘기하냐면 우리도 다 마음을 열어놓고 다 신앙을 하고 또 이와 같이 배우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이와 같이 송강사의 사찰에 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저희들은 다 쫓겨납니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밤에 늦게 몇몇 사람 모였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토 교수님께서 보실 때에 또 그리스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또 동양의 전통에서 자랐고 또 동양의 전통 속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의 어떤 보편 사상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카토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려가면서 세계관도 넓어지고 또 종교관도 넓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과제인 것 같아서 한번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카토 줄리우스-케이: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주셨네요. 많은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크리스트럼 배경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다른 종교에도 열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캐나다 미국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들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성이 큼니다. 문화적 다양성도 큼니다. 그래서 피하기가 어려워요. 민족 그룹도 그렇고 종교적 그룹도 그렇고 다양한 그룹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만 가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온타리오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좀 캐나다에 있는데요. 학교 시스템이 독특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단 가톨릭 학교 시스템이 있고 공공 학교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립학교죠 그런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톨릭 크리스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 딸 아이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었는데요. 가톨릭 학교에 보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온타리오를 보시면요. 가톨릭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가톨릭만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만 있는 겁니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

리 크리스천이지만 아빠는 네가 공립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아빠는 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자신의 종교적 전통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요즘 보시면요. 종교가 없죠. 배경은 크리스천 배경인데 기독교를 믿는 배경에서 자라도 나중에는 믿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대학을 보시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익숙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좀 있습니다. 종교가 없다면 사실 종교에 대해 말하기 어렵겠죠. 집단 지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자면요. 전통에 대한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크리스천 배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 전통에 대해서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겠죠. 그래서 인류 공동의 가치의 학생들이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도광: 예 고맙습니다 가토 교수님 이제 플로에서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질문을 공개 석상에서 채팅방에 올려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채팅방에서 질문들이 있게 되면 그것을 패널리스트 분들에게 질문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패널을 오픈시켜서 대중들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질문을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저는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저는 종교 간 대화 협력 운동에 오랫동안 참여를 해오면서

가장 그 젊은 세대 분들과의 대화 그리고 젊은 세대들 간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서도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의 서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예비 성직자들 간의 모임들이 있어왔었고요. 그리고 간혹 예비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또 노래도 같이 부르고 또 그러면서 서로가 공유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때때로 아주 드물게 일어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카토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 주신 것은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종교 전통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전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크리스티나 리님의 께서 또 말씀을 주신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으로 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서로가 참여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석 교수님도 얘기를 한 가운데에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내지는 일반 사람들이 정말 관심 갖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의 선택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함께 어떤 다른 종교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시스템이 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이런 짧은 말씀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가 해야 될 역할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의견을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보다도 카토 교수님 크리스티나 리 님 그리고 허석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자유롭게 말씀을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허석: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나 리 선생님께서 포콜라레 운동을 하셨을 때 정치와 경제 분야의 어떤 종교를 넘어서서 그 분야에까지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자본주의에 완전 배척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정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교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실천적인 운동으로 오랫동안 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래서 원불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다양한 이념들을 갖고 있고 노력들을 해오고 있지만 이렇게 포콜라레 사례를 통해서 저희도 더 많은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활동들을 해야겠다는 그런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이어서 카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교육의 중요성에 저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대학교가 원광대학교인데요. 이 대학교는 원불교가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학교에 들어오면 모든 학생들이 종교에 관련된 수업을 필수로 듣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 학기마다 한 300명 정도의 1학년 신입생들에게 그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종교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학생들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그냥 나는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인이라는 정도의 소속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나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종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이며 그 종교가 추구하는 수행과 신앙의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체득하고 어떤 실천해 본 경험은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종교 교육이 단순히 종교 교리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종교의 참된 가치 그리고 세계관 나아가서는 수행을 함께 체험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되었을 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종교의 본질이 젊은 층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도광: 네 고맙습니다. 어서 교수님 자신의 경험을 사실 대학교 1학년을 종교 분야를 가르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자신의 종교 신앙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다양한 종교 한국의 종교 그리고 원불교를 이제 배우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억지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원광대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내가 가르치는 종교를 믿어라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러한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게 서로가 대립적 구도가 아니라 서로가 좋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좀 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토 줄리우스-케이: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부권에서는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종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기독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보게 되는 것은 최근에 불교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서부권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통해서도 왜 그런지를 좀 연구해 보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트렌드가 보이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이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면 졸려하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별로 인기 있는 주제도 아니고요. 그런데 마음 챙김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을 수렁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갑자기 막 관심을 보여요. 지난번 학기에 제가 대학교 1학년들한테 저도 가르쳤었는데 제가 원래는 보통 1학년들은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과정 하나를 맡았어요. 제가 강조했던 것은 제가 오늘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교리에서 윤리로 옮겨가기 교리에서 자해 짐 컨퍼션으로 넘어가기 단순히 믿고 신앙에 있어서 실제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학기 때 경험했던 것인데요. 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냐면요. 이 주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세계의 종교관을 주입시킨 것도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 종교가 인생이다. 종교가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접근 방식을 말씀드렸더니 젊은 세대들 젊은 애들도 굉장히 종교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박도광: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이 되고 사실 자신의 종교에 대한 관심에서 불교의 어떤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 파사나 수행이 특히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에 많이 퍼지게 되면서 마인드스 플리스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저는 생각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이 마인드 플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벽이라든지 가림막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정말 카토 교수님께서 좋은 경험을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크리스티나리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아무래도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좀 더 많이 갖고 이러한 정신이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학문 학술적인 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종교적 경험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어떤 활동을 함께 나눌 수도 있는데 어떠한 형태의 대화를 하더라도 또 우리 포콜라레에서 하고 있는 경험의 하나의 결실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종교인으로서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는 크리스찬으로서 아까 카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여러분 그런 것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원래는 크리스찬으로 태어난 학생들이 점점 크리스찬적인 그런 면이 내려가고 없어지고 또 크리스찬에 너무 교회를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면을 젊은 시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도 지금 사회에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어느 종교이든 간에 영성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것을 되돌리면서 생활의 중심에 놓고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사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가족으로 버리면 모든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 성서의 가르침 속에는 모든 인간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를 떠나서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특히 어려운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제 생각에는 불교에도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왜 인간은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제 이러한 영성을 중요시하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존경한 대화를 실천할 때의 그 결실로서 어떤 걸 느끼게 되는가 하면은 존경한 대화 모임이 끝나고 나서 느끼는 것은 내가 만일 크리스찬이었다면 나는 더 진정한 크리스찬인이 되고 그러면서 또 타 종교에 대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심도 더 늘어나고 이것이 참된 종교 간 대화의 모습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그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대화라는 게 가능하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한 정체성이 허술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렇지만 여기에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요 제 가 또 한 가지 아까도 조금 얘기한 것이지만은 앞으로 되도록이면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끼아라께서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세계에서 중요, 분쟁 이런 태사를 움직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이지만은 많은 사

람들이 서로 갈라지고 불멸됐을 때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형제나 서로 간의 이해나 일치를 자기 일생의 이념으로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자면은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도 앞으로 더욱 협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도광: 네 고맙습니다. 크리스티나 리님 사실 오늘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기후 문제 생명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이나 중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난민 문제 그래서 다양한 난민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인권에 다양하게 억압을 받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같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주셨고 특별하게 플로우에서는 질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들 속에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가 가야 할 방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인류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완 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풀어나 주는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종교는 대중으로부터 우리가 존경을 받고 또 배움을 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의 지속적인 가르침이 교육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플랫폼 속에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 또는 종교 학자들의 세계 보편적 윤리의 문제 공공 철학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담기고 또 다른 종교의 신앙이나 또는 실천적 수행들이 함께 보여 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세 분 교수님과 그리고 패널리스트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토론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닥터 줄리오스 케이 카토 교수님 그리고 포콜라레의 크리스티나 리 님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허석 교수님 이와 같이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지혜를 나눠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3. 글로벌대담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세계정신과 세계시민성”



마츠이 캐시
세이센대학교 교수



엘레인 돈린
샌프란시스코 종교연합위원회 이사



정우탁
前 UNESCO APCEIU 원장



아이작 토마스
URI 국제이사

종교계 · 학계 · 국제기구가 함께 하는 <글로벌대담>

(좌장) 마츠이 캐시

(패널) 엘레인 돈린, 정우탁, 아이작 토마스

정우탁: 먼저 저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 교육원 원장을 역임했었구요, 하면서 세계 시민 교육을 유엔 에스디지에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10분정도 발표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엘레인 돈린 선생님, 아이작 토마스 선생님 1분씩 자기소개 한 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레인 돈린 선생님 소개해주시죠.

엘레인 돈린: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종교연합 위원회 이사입니다. 불교 연합 협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종교연합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여기는 지금 밤 11시이네요.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탁: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작 토마스 선생님 소개해주시죠.

아이작 토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작 토마스입니다. 저는 종교연합 이니셔티브 유얼아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ICCGC 2021년 온라인 회의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매우 기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이 행사를 개최 해 준 주최 측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정우탁: 아이작 토마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자 세 사람은 패널리스트 세 사람 다 들어와 있구요. 캐시 마츠이 선생님 연결이 되면 좌장 역할을 해 주실 겁니다. 먼저 순서대로 제가 먼저 10분 발표를 하고요. 우리 이미 프로그램에 나와있는, 엘레인 돈린님이 두 번 째, 그리고 아이작 토마스 선생님이 세 번째 10분씩 발표를 하고 서로 상호 질문을 하고 또 플로우에서 질문도 받고 토론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탁: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글로벌 시티즌 십 에듀케이션,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조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제가 글로벌 시티즌 십 에듀케이션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10분 이내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적은 세계 시민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유엔 에스디지(UN SDG)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과정을 말씀드리고, 제가 6년간 아태 교육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활동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인데요. 파란글로 쓰인 것, 우리가 살고있는 작은 지구촌의 소속감 갖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같은 인류라는 연대감을 갖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정의이구요. 두 번째는 보편적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것. 이게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보편 가치에 들어가는 핵심가치, 코어 컨셉을 말씀드리면 세계 평화가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세계평화, 인간다움 이런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생각한 발전이죠? 문화 다양성, 그리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해. 이런 다섯가지가 핵심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세 가지 큰 도메인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카데미 널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로벌 도전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인식적 측면이구요. 두 번째가 소시오 이모셔널, 우리가 감성적으로 공감하고 연민도 느끼고 오션 섹션에서 캠페인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연민도 느끼고 공감하고 하는 감성적인 영역이구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공감하면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참여와 행동의 도메인입니다. 모든 세계 시민 교육의 페타고지는 홀리스틱(Holistic)하게 접근해야 된다. 홀리즘, 그리고 일방적인 원웨이(One-way) 티칭이 아닌 쌍방 혹은 다방면에 서로가 주고받는 다이얼로그, 그리고 이런 가치관을 형성해내는 밸류 포메이션,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앤 퍼몬, 이 네 가지가 핵심 페타고지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은 모든 학과목에서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에서 에스비지 글로벌로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아젠다 아시나요? 글로벌 아젠다라고 하면 유네스코 이에프에이(EFA), 유엔에서 채택하는 엠디지(MDG), 그 다음에 에스디지(SDG) 이 세가지입니다. 유엔, 유네스코가 채택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존중해야 될 목표. 이것이 바로 글로벌 아젠다입니다. 글로벌 아젠다가 시작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한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는데요, 1990년 이에프에이, 2001년 엠디지, 그리고 2015년에 에스디지 이렇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교육 기구죠, 교육감 기구인데,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글로벌 아젠다로 에듀케이션 폴 올(EFA, Education for all) 여섯 가지 프레임 액션이 있습니다.

2001년에 유엔이 첫 번째로 채택한 글로벌 아젠다가 밀레니얼 디벨롭먼트 엠디지(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입니다. 여덟 가지 목표입니다. 이에프에이(EFA)와 엠디지(MDG) 유네스코와 유엔이 어떤식으로 주고 받았는지는 이 표를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에프에이에있는 초등교육 목표나 그리고 양성평등 이 두 가지가 엠디지에 포함되었습니다. 2012년 9월에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께서 세계 시민을 양성하자는 것을 주창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 세계에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에프에이 세 가지 목표 중에 두 가지는 제피 반 총장님이 추천한 제피 세 가지 목표 중에 두 가지는 이에프에이에 다 있던 거고요, 세계 시민을 양성하자 하는 것은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 처음 나온 얘기를 포스트 엠디지에

넣고자 한 것이 바로 글로벌 아젠다 세팅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마침 당시에 아시아 태평양 국제 예교육원 4대원장으로 부임해서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이 제가 글로벌 아젠다에 넣어야 되겠다고해서 작업을 해서 결정적으로 성공한 게 2015년 인천에서 열린 유네스코 월드 에듀케이션 포럼입니다. 여기에서 유네스코 모든 회원국들이 세계 시민교육을 유네스코 교육 아젠다로 넣자고 해서 동의해서 들어가고 성공적으로 3년에 걸친 작업 끝에 성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반기문 총장님이 2012년에 이야기하시고 아태 교육원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5만 무스카 회의가 열리고 유네스코 월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유엔 에스티지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세계 시민 교육이 에스디지 4.7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무스카 회의 장면입니다. 월드 에듀케이션 포럼에서 인천 선언에 포함되었습니다. 인천 선언은 한번 찾아보시면 세계 시민 교육이 들어가있습니다. 유엔으로 가서 유엔에서 이게 에스디지 만들 때 이게 중요하다 해서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공포를 하고 결국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제 70차 총회, 에스디지(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총회인데요. 열일곱 개, 이름이 엠디지에서 에스디지로 바뀌었습니다. 여덟 가지 엠디지 목표가 열일곱 가지 목표로 바뀌었는데, 네 번째 퀄리티 에듀케이션에 일곱 번째 타겟으로 세계시민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에스디지 타겟 4.7에 들어가있는 원문. 가장 중요한게 에듀케이션 포 서스테너블 디벨로먼트, 그리고 에듀케이션 포 글로벌 시티즌십(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에스디지 4.7 에듀케이션 포 서스테너블디벨로먼트. 그리고 에듀케이션 포 글로벌시티즌십 이 두 개가 모든 열일곱 개 에스디지 달성에 핵심 키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두 에듀케이션 포 서스테너블디벨로먼트와 글로벌 시티즌 에듀케이션 이게 인듀케이트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각 국가 교육 정책에 얼마나 포함되느냐. 각 커리큘럼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각국 교사 교육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네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에스디지 글로벌 아젠다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아태 교육원 원장으로서 했던 역할입니다. 에피시 아이유 아태 교육원을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태 교육원은 유네스코 카테고리 투 기관이고 서울에 위치해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교사 양성, 세계 시민교육을 가르칠 사람을 양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국제 회의를 통해서 알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구요. 온라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어로 온

라인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 가서 가르치면서 교사들이 먼저 세계 시민이 되는게 필요해서 이웃 국가들과 교사교류 사업을 한 학기 동안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보시는 것처럼, 캄보디아, 몽골, 우간다, 콜롬비아, 필리핀, 스리랑카, 레바논, 케냐에 세계시민교육을 커리큘럼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전세계 단체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네트워크, 아랍 네트워크, 남미 네트워크, 그리고 아태지역 네트워크, 유럽 네트워크,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까지 이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 전문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 서울에서 가장 세계 시민교육을 잘 하고 있는 베스트 팩티스를 선발하고 또 페다고지 이런 교육 방법론을 서로 교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참석하셨고, 필리핀에서 교육장관도 오셨습니다.

유엔에 가서 매년 세계 시민교육 회의를 열었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 열었는데요. 유엔에는 지금 현재 세계 시민 교육 프렌즈 그룹이 의혹 국가들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민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아태 교육원 원장을 2019년에 물려나서 지금은 경희대학에서 세계 시민교육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15주 코스입니다. 글로벌 이슈들은 다 다루고 있고,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세계 시민 교육에서 조금 더 들어간 한 단계 심화된 코스로 에스디지, 개론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스디지란 무엇인가부터해서 열일곱개 목표를 그룹을 나눠가지고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발표 토론하는 과목인데요. 굉장히 아주 효과가 있는 정말 의미 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것은 한국 사례인데요, 한국에서는 초중등 교육뿐만이 아니고 대학교육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치고, 최근에는 평생 교육기관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평생 교육 관련해서 강의했던 곳들입니다. 열 개 도시를 돌면서 세계 시민 교육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사진보시면 포항에 가서 세계 시민 교육을 소개한 사진입니다. 구미에서 제가 세계 시민교육을 소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10분 내에 소개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초중고 뿐만 아니고 교사들 뿐만아니고 이제는 대학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평생 교육기관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을 열심히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10분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츠이 캐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경을 보시면 아카데미한 배경은 아닌데 제가 장소를 옮겨야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커리큘럼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내용을 청해두고 싶는데요. 어떤 경험이었는지, 다양한 레벨의 교육이 어떠한지, 청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제가 연결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마츠이 캐시 세이센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발제를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엘레인 돈린 샌프란시스코 종교연합위원회 이사님. 발표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레인 돈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주최측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불교 승려입니다.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종교 연합 위원회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양한 종교에서 모입니다. 크리스찬, 힌두, 무슬림, 불교, 유니탈리안 유니버설리스트, 유대교, 그리고 다양한 원주민 종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다양한 종교간 일을 해왔습니다. 종교 교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공통의 이해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캠페션의 그 근간을 두고있다고 봅니다. 저는 캠페션, 자비 자애로움을 근본적인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여러 신앙을 보면 이웃을 돌보라는 '배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멘탈리티는 이러한 정신체계는 영적인 가르침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GCED 글로벌 세계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을 보시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보면 공동의 가치 캠페션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캠페션을 위한 움직임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시민성이라는 주제를 화두로 두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을 어려운 도전과제를 헤쳐 나가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팬데믹 시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원회는 88년도 겨울에 탄생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도시에 시장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한 주거, 그리고 장원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추웠기 때문입니다. 89년도 2월에 쉼터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지진이 닥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닥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거지가 없었고,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간 조직이 필요하리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걱정들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우리 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캠페션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한 것입니다. 3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같이 일합니다. 따뜻한 식사, 그리고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8백여 관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다양한 곳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헬스케어, 의료관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아침을 제공합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죠. 신앙에 근간하고있는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지니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신앙에 기반한 커뮤니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공공정책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다룰 수 있는거죠. 그런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지난 21개월간 저희 위원회가 한 일을 보시면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그 외 지역을 아우르는 일을 해왔습니다. 팬데믹 사국 때문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긴급정보 센터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매주 코로나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업데이트된 관련성 있는 정보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위클리 브리핑을 보시면요 시민사회 지도자도 있고, 커뮤니티 지도자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력을 다루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령 인구를 돌보았고, 그리고 인종간에 평등을 더 들여다 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에게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계속 팬데믹으로 인해서 계속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런 미션이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다양한 신앙을 기념하고 영적인 전통을 기념합니다.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이해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섬깁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차이를 헤쳐나갑니다. 항상 만나고 행사가 있을 때 다양성을 헤쳐나갑니다. 종교간 커뮤니티입니다.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면요 내가 바라는 정체성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전통에 있어서도 자유를 갖습니다. 다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서로 잘 이해합니다. 믿음의 전통을 잘 이해합니다. 우리 도시 내에서 더 이해를 도모합니다. 제가 생각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커뮤니티에서 종교간 서비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교간 예배의 형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캠페션, 다양한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주제를 보면 종교간의 이해, 행동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차이점을 극복해야합니다. 캠페션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서 함께해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천해야합니다. 코로나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이

세계는 분명히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쉽습니다만,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감, 그리고 지식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모두의 상호연결성을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상호 의존성을 갖습니다. 즉 완전히 자동적으로 분리되어 있지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세계 시민성이라는 개념을 보시면 저는 이것이 종교간 인터베이트의 개념과도 맞아야 있다고 봅니다. 풀뿌리 수준부터 저희는 이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삶을 바꾸고 삶을 유지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종교를 갖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선을 위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간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 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츠이 캐시: 감사합니다. 돈린 이사님,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캠페션의 중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근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셨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계시고 기념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민성에 역여있는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종교간 대화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작 토마스 이사님을 모시고 발제를 청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이사님은 종교연합 이니셔티브(URI, United Religions Initiative)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아이작 토마스: 안녕하십니까. 캐시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 2021년 이 패널로 참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인도에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카타르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 다싶이 저는 종교연합 이니셔티브, URI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종교간 연합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평화와 정의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람들과 종교와 문화의 차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각각의 공동체와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오피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구요. 112개 국가에서 천개 이상의 회원 집단이 전세계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NGO는 유엔 사회경제 위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풀뿌리 운동을 더욱 강화해서 사람들 간에 모든 신앙에 있어 차이점을 극복하고 우리가 현지에 문제들, 또 글로벌 저장 과제들을 극복하고 이 공동체 힘을 통해서 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제가 글로벌 세계 시민성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시민의 학습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글로벌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죠. 사회적인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여러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 의식의 가치관은 이 평화의 문화에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것은 어떻게 이러한 가치를 이러한 태도들, 행동들, 책임있는 이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또 창의성 혁신과 평화를 위한 노력,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지 각각의 지역에서 또 전세계적으로 조 더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틴 루터킹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때부터 끝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관점을 개혁하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전세계적인 운동을 이루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모든 종교는 종교적인 관행들, 수행들이 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개념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아이디어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 같은 인간, 한 인류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가져가야합니다. 이 주제가 모든 세션에서 모든 연사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개별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가는 것을 도전해야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전통과 또 종교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세계에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합니다. 이것을 종교의 핵심 거점으로 찾아 갈 수가 있습니다. 운동과 네트워크 또 공동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종교간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앙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믿음 한 가지의 종교 믿음이 아닙니다. 유알아이 종교연합 이니셔티브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다양성 안에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93년에 유엔이 전 세계 종교인들을 초청 했습니다 굉장히 큰 종교간 연합, 50주년을 기념해서 초청을 했고, 만약에 각각 전 세계에 국가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유엔을 통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렇다면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 수 천 명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관점, 그리고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URI를 만들었습니다. 종교연합 이니셔티브입니다. 표현적인 한 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풀뿌리 기반의 구조로 시작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행동 원칙, 공동의 선을 위해서 여러 지역과 문화의 종교 사람들을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글로벌 종교연합 이니셔티브 2천년도 6월에 시작을 해서 URI가 시작되었고, 또 이사회가 시작되었고, 또 자원봉사들, 후원자들, 기여자들, 또 많은 공동체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URI 종교연합 이니셔티브의 미션과

역할은 평화와 상호연결된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분들은 다양성을 위해서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연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각각 지역과도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수행해서 우리 회원 집단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 서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 행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과정, 또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또 여성 청년 프로그램, 또 인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질문은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느냐입니다. 합력을 더 촉진시키고, 폭력을 종식시키고,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해야합니다. 다른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다 싶이 종교는 인생이고 삶입니다. 수십억년의 진화와 또 역사 후에 우리가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그 혼자가 삶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대륙의 한 일부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계적인 정신, 체계적인 영성이라는 주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 의식의 새로운 진화를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식이 요구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책임성과 연민을 가진 자애심을 가진 책임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신자들, 이념의 차이점을 넘어서야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철학적인 종교적인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가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고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위너리즘의 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의식의 진화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 있어서 인류를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위기에 있을 때 서로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세계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행성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공동으로 도시에 그 차이점을 존중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존중과 연민, 연대의 문화가 지금 우리 이 세계를 재편시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고 사랑의 세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21년간 URI가 추구 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풀뿌리 조직으로 시작해서 수천명 이상이 함께 하고 있는 세계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인선티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생명과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유알아이 집단에서 협력하여 다양한 전통을 만듭니다. 포용적이고 또 현장에서의 해결책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복원과 행복과 성공, 그 공동체 일원들의 희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가 항상 더 많은 생명을 만들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계 시민 의식의 그 생명, 그리고 세계 정신성, 세계의식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츠이 캐시: 아이작 토마스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주셨습니다. 로컬, 그리고 글로벌 도전과제를 다루고 계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키워드를 많이 사용해주셔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세계 시민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존중, 그리고 삶의 가치를 다루어주셨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성공적인 일을 해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을 나중에 청해듣고 싶습니다.

질문들을 제가 드릴텐데요.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연사 분들 중에 서로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실까요? 서로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실까요?

먼저 마지막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글로벌 스피릿츄얼, 세계 정신이라는 것이 종교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교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종교가 인텔 페이트 커뮤니티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더라기 보다는요, 더 크게 연결을 해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재적인 영성은 존재하구요. 그리고 더 크게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논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말씀해주시겠어요?

아이작 토마스: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새롭게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생겨난 것이 아니구요. 이 균형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연합되고 일치되고 다양한 삶 속에 일치가 된다는 것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계정신, 세계 영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또 이 종교의 영성과 정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플랫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젊은 세대의 입장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한 플랫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혜와 모든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교적인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 정신, 스페셜리티의 개념은 우리 종교적인 믿음에 있어 좀더 촉매제가 되고, 우리를 또 함께 일치시키고 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치유의 세상을 만들고 번영하는 세상을 구축해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미래가 지향해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츠이 캐시: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진행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계 시민 의식 교육에 있어서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떠한 변화를 보고 계신가요? 미래 사회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10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말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엘레인 돈린 이사님부터 말씀해주시겠어요?

엘레인 돈린: 일단 공감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재적인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제 목표 혹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고 하신다면요, 한데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하는거예요. 서로 모으고 나누는 겁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종교 연합 위원회에 있는데요. 이러한 위원회가 더 잘 연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합니다. 세계 시민성이라는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싶구요. 세계 정신, 세계 영성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임을 가질 때 들여다 보면 좋겠어요. 8백여 가지가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이 주제로 논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제를 막힘없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나누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다른 위원회들과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더 많은 종교간 위원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뒷받침을 해주고 우리의 비전을 같이 이어나가면 좋겠어요. 그게 제 비전인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한 비전이지요.

마츠이 캐시: 네 알겠습니다. 연장의 중요성. 네트워크의 중요성이네요. 그리고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영성, 정신을 살펴보고 나누는 것. 맞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우탁 전 원장님께 같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전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전 경험에 대해서 더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탁: 지금 두 분은 종교 영역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유네스코 교육 영역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2천년대 MDG 이전까지는 UN이나 유네스코나 글로벌한 하나의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1990년 EFA 오고, 2000년에 MDG 오고, 2015년에 SDG가 오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목표, 글로벌 아젠다를 처음 제시한 것.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종교는 예전부터 인류 전체 세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유엔과 유네스코, 국제기구, 그리고 이런 국가들은 처음으로 글로벌 목표, 글로벌 골(Goal), 글로벌 아젠다를 2000년에 와서 처음으로 설정하고, 한 20년이 흐른 거죠. 이것은 참으로 큰 인류 역사의 변화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가면서 인류가 인류 전체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인간 중심(휴먼 센터 시빌라이제이션) 산업 문명 이후죠? 오직 인간만 생각하고 살아온 휴먼 센터 시빌라이제이션에서 생태 중심으로. 그러니까 에콜로지. 우리 동물, 식물, 혹은 무생물까지도 생각하는 이러한 생태 중심 주의로 이제는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다. 아직 그쪽으로 완전히 가지는 못했죠. 여전히 논쟁이 뜨겁죠. 지금 탄소 중립, 이런 환경문제 꺼내면 기업이나 이런데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 두 번째는 1648년 웨스트 조약 이후에 민족국가,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 단위로 움직여왔는데, 그것으로 는 도저히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구 전체, 글로벌 커뮤니티, 이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지구 공동체 중심으로, 그러니까 탈민족 주의, 탈민족 국가라는 움직임이 이제 나타난다. 이것도 아직은 여전히 민족국가가 중심이죠. 그러나 움직인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낙관적인 입장에서, 미래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데, 우리가 에콜로지 중심으로, 그리고 민족국가를 넘어서 글로벌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을 가속화 시켜주는 역할,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글로벌 시티전십 에듀케이션이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 유엔에서는 엘리멘터리스쿨, 초등, 중등, 대학까지는 신경을 쓰는데, 여력이 안 되가지고, 평생 교육 혹은 유아교육까지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데, 오늘 두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평생 교육도 종교와 같이 해서 하나의 무브먼트로 교육과 종교가 손을 잡고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무브먼트, 움직임, 운동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츠이 캐시: 감사합니다. 비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비전이 인간 중심적인 문명에서 생태계를 생각하는 생명체, 심지어는 무생물까지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나아가야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실천을 하는 것. 웨스트 펠리아 조약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씀해주셨는데요. 또 낙관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요. 세계시민 의식 교육에 이러한 변화를 더 가속화 하는 촉매제가 된다.라는 부분 저도 정말 많은 동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작 토마스 이사님,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이작 토마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일 하나의 독단적인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표를 이루는데도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종교인으로서 교육자로서 세계시민으로서 한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정신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을 생각해볼 때에 이것이 한 과정이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 것인지는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24살이고 아직 청년입니다. 아직 어린편이죠. 그래서 내가 서른 살이 되고 마흔 살이 되고 더 많은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속가능한 힘을 만들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안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점을 자기 자신을 부터 시작해서 친구와 가족, 공동체, 지역사회, 속한 집단, 사회 전체적인 국가, 또 전세계로 확장시켜 나가야합니다. 어떻게 그런식으로 변화해나가는지 과정을 봐야하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심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수천그루의 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동물을 구하는 것도 한 사람이 행동하면 수천마리의 동물들을 구할 수 있고, 한 명의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수 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이 그 국가 전체 민주화를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집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에서 실천하는 것. 이 하나의 실천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 그리고 그것이 전세계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풀뿌리 운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연합 이니셔티브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풀뿌리 운동은 이 풀 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후에 글로벌 문화와 함께 융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목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각각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일단 자기 자신에서부터 실천을 하면서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함께 변화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청년 평화 리더들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협업하고 싶어하고, 이 이니셔티브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함께 기획하고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고 일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츠이 캐시: 네. 첫 번째 발표에서 비전을 이미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종교연합 이니셔티브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를 볼 수 있으니까요. 토마스님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행동들, 실천 사항들이 있을까요? 어떠한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작 토마스: 어떠한 특정한 한가지가 있다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가지 구체적인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부터 시작해볼 수도 있겠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기

후 위기부터, 또 핵무기,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문제, 그리고 교육.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또 인권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겠구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술 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제가 하려는 것이 이 기술적인 발전이 글로벌 세계 시민의식 정신과 접목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가지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특별한 학위나 자격증이 있어야 평화 구축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군인도, 소방관도 평화 구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 현대 세계는 새로운 의식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의식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적기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공유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풀뿌리 운동의 성공과도 연결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전세계의 이니셔티브르 하나로 통합시키고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각각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미국, 북미지역 모든 이 지역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 활동들과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융합되고 다른 지역과 참여하고 다른 공동체 지역사회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그들의 미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속되는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미래의 선봉적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중(질문): 다른 연사분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포괄적인, 포용적인 태도가 중요하구요. 모두를 포용해야 하는 것이죠. 포함해야하는 것입니다. 모든 차원을 고려해야하는 것이구요. 돈린 이사님. 많은 내용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어떤일을 해오셨는지 공유해주셨는데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전세계적인 의식에 대응을 하고계신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전과제가 있었나요? 어떤 도전과제가 있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어려운 도전과제를 극복하셨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궁금하고 미래에는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엘레인 돈린: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전과제라...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위원회에서는 위기가 닥치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주거문제 있고요, 그리고 평등을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끝없이 문제가 있어요. 어제 또 사실 미팅이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인종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공동체가 존재하는데요. 이슬람 센터에 공격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모이려고 하는데 위기 중에는 모인다는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교적 전통이 도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도전과제라고 한다면 위기는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죠.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파편입니다. 일환입니다. 24살이라고 들은게 맞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우리의 희망은 젊은이들에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도 계실텐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집행을 하고 있었나요?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을 겁니다. 여기 모인 많은 분들 세션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청중 분들도 계시죠. 다들 놀라운 일을 스스로 해오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더 많이 해야합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이들에게서 더 많은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위원회에도 젊은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고 일을 해냅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요. 도전과제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도전과제는 끝이 없습니다. 위기가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만 봐도 그렇죠. 공동의 근거를 찾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저는 그래서 희망이 많다. 희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츠이 캐시: 맞죠. 커뮤니티만 봐도 도전과제 많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같이, 포용적으로 같이 일 해야합니다.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희망도 있다고 하셨어요.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젊은이들이 일을 해내고 있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행동을 취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이 세계시민 교육 덕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우탁 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미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제 시작이었잖아요. 미래 교육에 한 계획은 어떠한지요?

정우탁: 제가 미래 교육 이야기하기에 앞서가지고 아까 도전과제 말씀하신데 한 가지 덧붙이고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시민교육을 이야기 하지만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상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아시안 스테이트 중심의 사고를 할 경우에 민족주의, 네셔널리즘. 이런 애국심,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걸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많이들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글로벌 시티전십. 이 의식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우리 서울에는 오늘 하늘이 굉장히 흐린데요. 지금 몽골 중국에서 날아온 엘로오 더스트 파인,...(?) 하늘이 지금 굉장히 흐립니다. 목도 막혀하고요. 이 문제가 지금 민족 주의나 애국심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몽골, 중국, 한국, 일본

같이 앉아서 문제를 해결해야되고요. 다 아시겠지만, 글로벌 모임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로 해결도 안되고, 예를들면 중국이나 인도가 빠져도 해결이 안되는 정말 글로벌 공동체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나 애국심.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 시민 교육에 관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세가 될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현재 유엔 SDG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유엔과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세계 시민 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정책, 교사 교육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해서 이렇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거죠. 문제는 미래라는게 2030년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는 아마 유엔에서 포스트 SDG,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2030년 끝나고 그 다음을 채택할 때에 저는 이런 세계 시민성, 글로벌 시티전십,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작 토마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유엔의 글로벌 아젠다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유엔에 글로벌 아젠다가 되면 글로벌이 관심을 받으니까 우리가 손 놓지 말고, 지금부터 연합해 가지고

종교계와 교육계 여기에 마음이 같은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이게 다음에도 더 중요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한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7,8년 후에 새로운 글로벌 아젠다를 만들 때에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이게 빠진다. 이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으로 끝난다. 계속 가려고 하면 2040년 50년 가려고 하면 오늘 이러한 모임, 종교 간 대화의 모임에서 세계 시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로만 하고 그나면 안되고요, 역에서 결의를 하고, 또 행동으로 가가지고 유엔에 많은 종교 단체에서 대표가 나가있죠? 유엔에 압력도 넣어야 되고요, 유네스코에도 압력도 넣고. 국제 회의에서 보이스, 아까 아이작 토마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니까.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엘레인 돈린 선생님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야한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아마 자칫 어렵게 세계 시민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2030년이 되면 또 빠지고 또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넣기 위해서 결의하고, 포스트 에코에 넣기 위한 작업. 프로세스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작업을 하나 가야한다. 누군가 하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거 중요하다. 세계 시민성, 지속가능 발전.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꼭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츠이 캐시: 감사합니다. 연대의 중요성과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전에 대해서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명의 패널분들 그리고 저까지 해서 지금 많은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앞으로 내다보면서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하는 것을 바라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모든 차원의 시민들, 모든 층의 시민들, 글로벌 시민 의식 교육 뿐만아니라 또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중 분들의 질문이 있을까요? 청중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 기능을 활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가 너무 명료하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질문이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오늘 논의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러한 코멘트를 나누어주셔도 되고요, 질문이 없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모든 연사 분들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이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인 것이 또 협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목표를 보고 함께 손을 잡고 협력을 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것.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이끌어갈것죠. 우리 자신을 믿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 우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너무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다,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라고 비판을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러한 미래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평화 교육자로서 저도 그런 비판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부터 시작한다는 믿음을 가져야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다른 공동체 지역사회, 조직들과 다른 국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세계가 연결되는 거죠.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더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토마스님부터 시작해볼까요?

아이작 토마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혼자서는 이 세계에 문제들을 바꿀 수가 없고, 이 폭풍우를 건너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평화에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에 주인공들이 되어야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되고 있는 그 활동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논의들이 국제 사회에서 노력되고 있는 활동에 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이 끊임없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좋

은 일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ICCGC 2021년의 주제가 뉴 노멀을 찾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노멀입니다. 어떤 한 세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 모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요. 유엔 총회에서 공룡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적기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할 수 있는 기회다.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기회를 잡아서 우리 실수를 고치고 미래를 계획해 나가야합니다. 다시 한 번 ICCGC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파트너십을 지속해나가고 모든 동료 분들 패널 분들, 좌장 분들, 캐시 교수님, 정우탁 원장님, 엘레인 돈린 이사님 훌륭한 말씀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평화 구축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츠이 캐시: 감사합니다. 돈린 이사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엘레인 돈린: 네 저도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사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제 생각에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점은요, 여러 종교가 이러한 내용을 들어야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발표를 하나 했었는데요. 이 때에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워크숍과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플랫폼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로컬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적 전통, 그리고 여러 교회, 종교적 단체가 있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경청했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우탁 전 원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하는 일이고,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생님 말씀도 무척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게되어 다시 한 번 영광입니다.

마츠이 캐시: 네 감사합니다. 행동의 중요성, 맞죠. 이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실지 살짝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세계 시민 영성에 대한 워크숍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이죠. 그런데 우리 종교간 만남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나의 친척 같은 비슷한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정우탁 전 원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정우탁: 오늘 패널에 와서 엘레인 돈린 선생님, 아이작 토마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이제 종교에는 이미 종교간 대화, 서로 이렇게 모이는 일이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넓혀가지고 종교와 교육계 말하자면 유네스코와 교육에 관련된 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러한 플랫폼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세계 시민 교육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에서 초중등 교육에 주로 역점을 두고, 대학은 이제 좀 알아서 확산하도록 하는데, 안되고 있는게 유아교육, 유아교육은 전혀 못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쪽도 손을 놓고 있는데 그런쪽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 하고, 특히 종교와 교육의 만남. 대화는 거의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 회의, ICCGC같은 경우가 유일한 만남의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엔, 유네스코에서 드디어 SDG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달성하도록 계속 푸시 해야될 거고요, 2030년 이후에 포스트 SDG에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오리티(Priority)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넣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사무국에서 작은 작업단, 워킹 그룹이라도 만들고, 같이 계속 대화하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해서 글로벌시티즌십에 관한 종교와 교육계의 대화에 모임을 끌고 가면서 2030년 이후에 포스트 SDG에 넣기 위한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츠이 캐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쳐야겠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함께 앞으로 계속 협력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생각들 의견들을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만들어서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의견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연사 분들 경험을 공유해주시고, 비전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 가지 행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세계 시민 의식 교육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를 좀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죠? 저도 20년 전부터 이 분수철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성 평등, 인종 평등, 문화적인 다양성과 또 세계의 총합을 존중하는 것. 세 분의 연사 분들이 다 강조해준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단계는 바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네요.

세션 4. 고위급대담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연합(UN)과 종교연합(UR)”



오경석
원음방송 라디오PD



김성곤
前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명예회장



김원수
前 유엔사무차장

UN과 UR을 대표하는 <고위급대담>

(좌장) 오경석

(패널) 김성곤, 김원수

오경석: 반갑습니다. 원음방송에서 종교화합프로그램 ‘동근소리 동근이야기’를 제작하고 있는 오경석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세계평화를 위한 국가연합 UN(유엔)과 종교연합기구 UR이라는 주제로 두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교연합기구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연합기구 UR을 대표해서 김성곤 전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 명예 회장을 모셨습니다.

김성곤 회장은 정치인이자 종교평화 활동가로서 대한민국 국회사무총장과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바 있으며, 한국인 종교인평화회의와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직도 수행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엔을 대표해서 김원수 전 유엔사무차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원수 대사는 대한민국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에서 고위 대표를 역임하시는 등 국제사회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현재는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이사이자,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담의 주제, 아마 두 분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테니, 긴 질문이 필요 없을거 같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세계평화를 위한 기구로서 국가연합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종교연합기구 UR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성곤 이사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두 축이 정치와 종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널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도 이 세계정보와 세계종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류 문명의 20여개의 큰 문명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면서 공통적인 법으로 다스리는 정치가 있고 윤리로 또 세계를 움직이는 이제 종교가 항상 문명의 두 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그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그리고 방법은 법에 의해서 합니다. 종교는 대체로 윤리와 사랑으로써 사회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 집안의 엄부와 자모 집안의 질서를 잡아주는 엄격한 아버지가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자애스럽게 키워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같이 있어야지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한 사회가 유지하는데 정치의 영역, 다시말해 정의의 영역이 필요하고, 또 한쪽으로는 윤리와 사랑의 종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시대에 들어서서 지구촌 전체 정치를 총괄적으로 움직이는 엄브렐라 조직이 이제 유엔이라는 국제라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이 윤리와 사랑의 영역을 다시말해 정신적인 그런 영역을 다스리는 여

러 가지 종교를 총괄한 u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종교연합 기구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서로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이 지구촌이 평화스러운데, 지금은 엄마는 없고 아빠만 있는, 다시 말해서 유엔은 그런대로 모양을 갖추고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역할을 해줘야하는 그런 종교연합이 아직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이 지금 서로 정의만 부르짖고 좀 삭막한 것이 아닌가 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해줘야 될 종교연합의 탄생이 이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경석: 물론, 종교연합기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1970년에 시작된 세계종교인 평화회의가 있고, 2000년에 창설된 종교연합이니셔티브uri가 있는데 그 위상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에 대등하지 못하고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UN에 비하면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됩니다. 힘이 나 조직력이나 자금이나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주역에 의하면 음양의 기운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양의 세력은 굉장히 큰데, 음의 세력은 작다고 하니깐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병들어 있는 원인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경석: 종교연합기구가 아예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에 대등할 정도의 영향력있는 종교연합기구 ur을 창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회담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원수 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사님께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오셨는데,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세계평화를 위해 유엔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URI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원수: 너무나 필요합니다. 김성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음양의 균형도 깨져있고, 엄부와 자모, 그러니까 법치와 사랑 윤리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분쟁을 보면 종교가 합쳐지지 못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도 있고, 종교내의 갈등도 있고요. 종교가 사회를 따뜻하게 통합해서 끌고 가는 역할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 연합을 하는 그것은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간의 인터 릴리즈 다이얼로그라고 하거나 인터페이스 다이얼로그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엔에서 이 종교간의 대화와 통합이 국제 평화를 위해서 너무나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분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의 갈등이 그 내전으로 가고 또 그 내전이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는, 종교간의 화합이 국제평화의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기에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종교연합기구가 하루빨리 활성화되는 것이 세계평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경석: 물론 지금도 유엔에서는 종교단체들을 지원하고 함께 활동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유엔에서 활동하실 때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들과 함께 협력했던 사례가 있는지, 혹 있다면 그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원수: 유엔이 종교간의 대화와 연합을 더 포괄적으로해서 문명 간의 연합(유엔문명연대, AOC)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얼라이언스 오브 시빌리제이션(AOC, Alliance of Civilizations), 이러한 유엔 안에 특사를 만들어서 노력을 한 적이 있었고요, 제 뒤에 보이는 사진에 있는 교황님과 찍은 사진인데 2015년에 교황께서 종교 간의 대화를 소집하시고 유엔사무총장을 거기에 부르신 상황이었습니다. 교황께서도 기독교간의 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교황청으로 불러서 종교 간의 대화를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였고, 2008년에는 이슬람교의 두 홀리 모스크에 커스티이기도 한 사우디 국왕께서 유엔 총회에 오셔서 또 종교 간의 대화를 주제로 대화와 화합을 주제로 이틀 동안 유엔총회에서 회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우디와 국교하지 않는 이스라엘 대통령 또 다른 많은 지도자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간의 내부의 화합 또 다른 종교와의 화합을 통해서 세계평화를 증진 하자는데에 종교지도자들도 나서시고 거기에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셔서 같이 힘을 합쳐서 문명간의 대화라는 더 조금 큰 협의체로 발전시켜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경석: 이런걸 보면, 정치는 종교의 역할을 필요로하고, 종교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기에 천주교 교황께서도 유엔을 찾고 또 이웃종교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 의원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전체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엔은 지난 2년 가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국제사회는 잘 협력했는가 돌아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종교가 인류는 한 가족이다라는 세계 시민의식을 일깨우면서 백신 나눔운동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볼수가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종교연합기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종교연합기구가 창설된다면, 글로벌 위기를 대처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김성곤: 정치와 종교의 큰 차이중에 하나는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속성이 크다. 정치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이기주의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제쳐두고 남의 나라를 먼저 도울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경우에는 미국 퍼스트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지지를 어느정도 받게 되긴하지만, 종교는 정치와는 조금 달라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한다, 백

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서로 구하려고 야단을 벌이면서 아프리카,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주겠다는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줄 여유도 없었습니다만. 그럴 때 그래도 없는 나라에 백신도 주고 우리가 치료의 손길을 뻗어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 종교인일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자기혼자는 못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마스크가 없는데 다른 나라 돕게 하고자할 때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국민들 요구를 들어줘야 하니깐, 그러나 인류 보편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지역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한다고 그래도 주장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종교연합기구가 만들어진다면, 강대국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여러 가지 국방, 경제문제도 그렇고 그러나 이 세계는 훨씬 많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유엔에서도 이제 국가간에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을 주장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사실 각 나라의 이제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여론을 좀 그런쪽으로 리드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한 약한 나라,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이렇게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은 종교인들이 해야하는 일이고 종교연합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경석: 각국의 지도자는 또 각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으나, 유엔의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유엔에서 오랜시간 활동해오신 대사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엔이 창설됐을때는 당시 이제 전쟁 방지,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했고, 오늘날에는 적극적인 실천들을 예를 들면 빈곤 질병 코로나 기후위기 극복 등 이러한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보는데 유엔이 그동안의 해온 역할변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원수: 지적하신대로 유엔이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류 사회가 안고있는 도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유엔이 더 많은 일을 해야합니다. 한가지 예를 드리면 제가 유엔에 처음 갔을 때 15년전인데 난민이 2천만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500만이 넘고 그 난민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도 지금 10년 이상 갔고요, 최근에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 난민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하는데, 유엔에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 들고 있습니다. 재정형편들이 어려워지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늘어나는 문제를 유엔이 담당하려면 정부가 못하는 것을 민간에서 취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파트너가 이제 종교연합, 종교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박애정신 그 다음에 국내 정치인들은 표가 안 되니까 대외원조를 예산이 깎

이면 제일 먼저 줄이는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가지시는 분들이 종교지도자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엔이 그 종교지도자들,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SDG(지속가능개발목표)라는 것을 2015년에 저희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은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지구생태계를 중심에 놓고, 환경과 사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시민의식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부터 체화된 시민의식 교육을 가장 잘 시켜줄 수 있는 곳이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렸을때부터 왜 우리가 환경과 더불어서 또 인간을 다른 인간에 대해서 또 포용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지금은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인류가 지금 계속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거든요, 그러한 시민의식 교육을 시키는데도 종교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종교와의 연합, 종교연합이 빨리 이루어져서 유엔하고의 협력도 더욱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경석: 대사님께서 이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원불교 세 번째 종법사를 지내신 대산종사님께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한 일터가 되었는데 인류는 한 가족이 되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전히 인종이나 종교, 이념으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또 난민에 대한 차별, 혐오 문제가 심각한데, 종교연합기구가 창설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어떤 것들을 뽑을수가 있을까요?

김성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김원수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후변화, 환경 문제일 겁니다. 사실 지난 2년동안 우리 인류를 혹독하게 괴롭혔던 코로나도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만들었고,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생긴 것이 이런 악성 바이러스의 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실이 기후변화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어떤 형태, 더 지독한 악성 바이러스가 출현할지는 아무도 예견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하는 이런 악순환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백신개발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금 탄소중립 2050년까지 전 세계가 제로로 만드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G10이 회의를 했지만, 어느 나라라도 자신 있게 이것을 2050년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못해서 두루뭉술하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다 김원수 대사에게도 질문하고 싶은데, 왜 유엔이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럴 때 좀

여러 나라를 압박해서 확실히 좀 유엔이 리더십을 가지면,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이 될텐데, 지금은 각 나라의 힘이 더 센거예요 유엔보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유엔은 지켜볼 뿐이지, 특히 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대국들이 해결을 나서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강압적으로 벌금을 물리기 도하고, 에너지 전환을 하기도 하고, 강압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동차를 몰지 않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 차로갈 것을 걸어간다든지 또 전기자동차를 쓴다든지 또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든지 이 자발적인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교육은 정부가 아무리 강압적으로 방법을 내놔도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되지않는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종교단체입니다. 교회, 사찰, 성당에서 신도들한테 우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집에서부터 자기 개인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합니까라고 교육을 잘 시켜서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문제, 코로나문제 해결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교육이고 그것은 종교단체가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원수 대사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유엔이 아버지역할을 한다하는데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아버지라고 잘해야 되는데 평화, 환경 문제도 그렇고 유엔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김원수: 의원님이 지적하신게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유엔이 조직은 잘 되어있는데 아버지역할을 제대로 해야하는데 일종의 유엔은 얼굴마담격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힘센 아버지들은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결정을 하려면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을 해야되고 안전 보장 이사회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5개 상임이사국들의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기후변화 환경보호 그다음에 지적해주신 팬데믹,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이미 인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단순한 경제개발사회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 안보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낮으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모든 회원국들이 따라야 하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이러한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 아직도 그 상임사국 다섯 나라가 의견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가 다섯 나라의 의견을 맞도록 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의 능력에 훨씬 벌어나는것이죠 이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 강대국 다섯나라(큰 나라)들이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생기면 그것을 사무총장이 또 떠안습니다. 사무총장을 영어로 줄여 SG라고 그러는데 스케이트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썬 유엔의 회원국들이 각성을 해야됩니다. 그 각성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도 종교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독교, 불교, 이슬람 등의 종교지도자들이 합심을 해서 정치지도자들을 각성을 시키는 그런 운동도 저는 더 세계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총장한테 힘센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선택해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그런 격이 될 수밖에 없는게 지금 안타까운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오경석: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의 영향력이 큰 5개 나라의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심성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듣다보니깐 UR 창설의 중요성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연합기구 UR 어떻게 창설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대사님께서 국제기구 경험을 바탕으로 바라보실때 종교연합기구 UR창설,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조언을 주신다면요?

김원수: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영향력이 큰 종교지도자들이 이미 하시고 계신, 교황님의 예를 들었고 이슬람을 대표하는 사우디 국왕이 하셨던 노력이 있으시고, 이제 UR이니셔티브가 출범이 된지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해서 이러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을 유엔의 얼라이언스 오브 시빌라이제이션(UNAOC, 유엔문명연대)이라든지 유엔의 어떤 그 틀을 빌려서 좀 통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유엔이 부르면 글로벌 컨비너, 소집할 수 있는 무대가 이미 있거든요 그 무대를 활용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여러개의 종교간 대화 문명간 대화들을 이렇게 한번 어떤 분이 중심이 되어서 소집을 해야 합니다. 유엔의 얼라이언스 오브 시빌라이제이션을 대표하는 특사가 있습니다. High Representative라고 하는데 이런 분을 내세워서 소집을 부탁하는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극복해야 될 장애요인들이 많을 것을 생각해봅니다. 저희가 유엔에서 해보면 어느 종교의 어떤 분파를 누가 대표하느냐 누구 부르느냐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게 굉장히 그 정교하면서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는 정치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경석: 이런 말씀을 참고 삼아서 이제 김성곤 이사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교연합기구 창설의 그동안의 여러 기구들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유엔에 대등한 기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김성곤: 원수대사님 말씀을 들으니, 유엔 못지않게 유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이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종교도 똑같습니다. 3개의 큰 종교들이 나서야 되는데, 제가 특정 종교를 비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사실 Secretary General을 종교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큰 종교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일을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원음방송은 원불교에서 하는데, 한국의 제일 큰 종교인 천주교 개신교 불교는 엄청 큼니다만은, 그런 큰 종교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다라고 할까요? 국제 사회에서도 이 큰 종교들이 나서주면 문제가 간단히 풀리는데, 종교연합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큰 종교가 아니라 대체로 마이너리티들이예요. 그러다보니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유알이나 좀 큰 나라 큰 종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엔은 그래도 각 나라의 대표가 분명합니다. 미국대표 중국대표등, 거기서 대사를 파견하면 그 사람이 유엔대사가 되는데 지금 세 개의 큰 종교들은 물론 로마 가톨릭은 교황청이 대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개신교는 WCC라는 조직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대표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 개신교의 대표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유엔은 아무리 적국이라도 북한하고 남한하고 유엔 테이블에 같이 앉잖아요? 그런데 종교는 이단하고 절대 같이 앉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와 개신교를 같이 앉으라고 하면 한쪽은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종교연합기구를 창설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포용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때가 많습니다. 저는 빨리 종교연합기구를 키우는데 유엔이 좀 역할을 해주면 더 좋은 거고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등한 힘으로 평화의 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경석: 여러 한계들을 말씀해주셔서, 원불교의 상징이 원이잖아요? 그래서 원불교만 그런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상 세계시민을 한 가족으로 보는 사상들이 널리 확산된다면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인류 전체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해 유엔이 노력을 해나간다고는 합니다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는 종교가 연합을 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 그리고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 유엔사무소 : 2012 Interfaith Harmony Week



원불교 유엔사무소 : 1997 Religious Leaders with Kofi Annan



원불교 유엔사무소 : Interfaith Prayer at the UN Church Center



세션 5. 청년대담

“현대 사회의 위기와 종교의 책임”

- 좌 장 -

전해복(새삶회 종교연합청년단 종교평화교육팀장)

- 패 널 -

이성영(가톨릭, 포콜라레 New Humanity NGO한국청년대사)

백현빈(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대학 대학생/청년회 전국연합회 총무)

조여주(원불교 예비교무,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대학원생)

이재선(천도교, 천도교 청년회장)

마츠다 사야코(입정교성회)

아라이 마사키(국제자유종교연맹 일본지부)

전해복: 지금부터 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둘째날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종교와 청년 현대의 위기와 종교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논제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과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은 미래의 주역이고 또 변화를 시켜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이 바라보는 현대 사회의 위기 그리고 종교의 책임과 역할 또 해결방안에 대해 젊고 활기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섯분의 청년 패널을 모셨습니다.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현빈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년전국연합회 총무, 이성영 천주교 포콜라레 뉴휴머니트 NGO 한국청년대사, 이재선 천도교 청년회장, 조여주 원불교대학원대학교학생, 마츠다 사야코 입정교성회 일본청년, 아라이 마사키 국제종교자유연맹 일본지부청년을 모셨습니다. 진행은 먼저 주제 스피치를 약 10분간 각 청년들이 발표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대담토론을 나누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소개해드린 여섯 분의 패널 중 그 순서대로 다섯 분의 패널에 주제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백현빈 청년 먼저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백현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기독교 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에서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백현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 혹은 불안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위기의 시대와 불안사회 속에서 살고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위기와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삶의 불안, 연대의 실종입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는 더 이상 우리가 어린 시절 과학시간에 배웠었던 빙하가 녹고 있다. 혹은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 하듯 북극곰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감성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제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해녀의 부역이라는 해녀님과 함께하는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해녀님이 말씀해주시기를 제주의 바다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해산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열대어종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해녀 분들과 어촌계의 수입이 바닥나고 있으며 또 생태계가 쏙 대밭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먹는 과일인 사과와 배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남쪽인 전라도와 경상도의 주생산물이었지만 이제는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제주에서만 자라던 굴은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남부지역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년 겨울 한반도를 덮친 폭설과 추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구 전체의 온실효과 때문에 이제기류가 불안정해진 탓이었습니다. 때문에 농작물들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팔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최근에 양상추의 값이 너무 올라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조차 그냥 양상추를 빼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커피의 주요 생산지인 남

미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무 가뭄이 들어서 커피농사가 흉작을 이루었습니다. 커피나무가 말라죽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원두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있고 머지않아 우리가 먹는 커피 역시 큰 폭으로 가격이 인상될 겁니다. 많은 기후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에서의 생존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로 1도 가량 올랐고 지금 우리가 배출한 이 탄소의 양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40년까지 2도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후의 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찾아옵니다. 같은 폭우가 내리고 집이 떠내려가도 자본이 많은 이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와 무한경쟁체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의 결과가 삶의 불안과 연대의 실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삶의 불안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한정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로 모든 것이 불안한 세상입니다. 불과 몇 년전에 삼포세대라는 이야기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npo 세대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울로족과 fia족이 유행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자 혹은 돌아보지말고 지금의 인생을 즐기자와 같은 양극단으로 몰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아버지의 노래 위너텍스이롤이 생각납니다. 말 그대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화된 승자독식이 능력주의를 만들어 냈고 능력주의의 화살은 결국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속에서 내부의 불안은 외부의 적을 찾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불안, 취직에 대한 불안, 주거에 대한 불안과 같은 것들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외부의 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적은 우리와 다른 특징을 갖는 대상에게 향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그 불안과 분노의 화살이 향한 곳은 바로 소수자들이었습니다. 장애인 혐오와 성소수자혐오, 여성혐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한경쟁 능력주의 소수자혐오의 결과로 연대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면 초등학교 시절 배웠던 슬기로운 생활 혹은 도덕 또는 윤리를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으실 지도 모르겠지만 해당 과목을 교육하는 주된 이유는 사회성의 확립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성이란 상호존중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사회가 굴러가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 이 사회에 형성되는 것을 신뢰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는 그 신뢰자본을 통해 연대하고 진보합니다. 사회는 언제나

진보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진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귀하고 존중받는 사회는 분명히 시작된 이래로 인류가 걸어 가야 할 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위에 설명한대로 실내 자본을 통한 연대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길로 향하는 길이 막혀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신뢰자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 입니다. 그 뿌리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을 위시한 금융자산들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됐죠. 벼락거지 논쟁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투자하지 못한 자신을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박탈감과 좌절감 그리고 불안함은 분노로 변화했고 그 분노가 실내 자본을 갉아먹으면서 연대가 실종되고 있는 것 입니다. 지금 시대는 종교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종교성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의 세대를 탓할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래의 종교성을 잃어가는 종교를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종교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치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가치는 정의와 사랑과 연대입니다. 하나의 신 아래에서 누구도 못난사람 없고 잘난사람 없다는 것 하나의 신 아래에서 모두 사랑하는 자매이고 형제입니다. 하나의 신 아래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가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 국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한국교회는 성공적인 사업 모델에 불과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종교 청년의 책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회 그리고 모든 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시대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위해 소리쳤습니다. 기독교청년들 그리고 모든 종교 청년들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사회적 신뢰자본을 회복하고 능력지위와 무한경쟁을 타파하며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모두 거짓 된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더 작은 소비와 더 작은 삶 그러나 그것으로 행복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대의 위기를 해소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혜복: 이어서 이성영 천주교 포콜라레의 뉴휴머니티 NGO 한국청년대사님께서 주제 스피치 이어가겠습니다.

이성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에 속한 포콜라레 운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이자 그리고 포콜라레의 NGO인 뉴휴머니티 NGO에서 한국청년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영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박현빈님께서 해주신 스피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기회에 초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특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계신 많은 다른 분들과 함께 2021년을 살아가는 청년의 한명으로서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포콜라레는 이탈리아어로 벽난로라는 뜻입니다. 포콜라레운동은 온갖 혼란과 위기가 뒤섞여있었던 그 세계 2차세계대전중에 세상에 정말 벽난로가 되고자하는 의미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념대립과 위기속에서 무기나 폭력이 아닌 모든 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예수님의 유언에 매일의 일상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포콜라레 운동의 젊은이를 의미 하는 젠. 저희를 이제 젠 이라고 부르는데요. 젠은 뉴제너레이션의 약자로 다양한 국적 문화 그리고 종교를 가진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 등 보통의 젊은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부정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소비주의에 대해 저희가 가진 재능 물건 시간등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등 나눌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문화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기주의에 맞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지며 그들과 정말 하나가 되어 주고자합니다. 그리고 2천년 대담 세션에 다른 다양한 종교청년들과 함께 특히 일본에 입정교성회 리소코 세카이의 청년들과 함께 참여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희 포콜라레 운동의 창설자이신 키아라 루빅과 그리고 리소코세카이의 창설자이신 미코나와노께서는 깊은 우정을 나누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그 분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두 그룹의 청년들은 일본 이탈리아 필리핀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 깊은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제로 이제 넘어와 보면 현대 사회는 포콜라레 운동이 태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그런 양상과는 조금 다양하고 그리고 더 새로운 위기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과 빈곤 기후위기, 앞서 박현빈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나열한다면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젠들은 함께 활동하는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이에 대항하여 유나이티드 월드프로젝트라고 하는 일치된 그리고 하나된 세계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활동은 2018년부터 시작된 패스웨이(Pathway), 오솔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패스웨이는 현대 사회에서 겪고 있는 그런 다양한 위기 중 한 가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한 해를 같이 보내 보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희는 모든 세대의 다양한 모든 세대에서 온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 속해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패스웨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배우고 Learn 영어로 일단 이제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고 Action 그리고 나누는 세어 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활동은 작년부터 올해 중순까지는 적극적인 시민성과 일치를 위한 정치라는 주제로 활동들을 집중시켰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저희가 앞으로 1년간 살아 갈 주제는 dat finalegionion이라고 하는 돕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자 그리고 사람 지구 우리의 환경전환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몇 주전에 있었던 포콜라레의 온라인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에다니고있는학생들도함께참여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UN 식량농업기구와 함께하고 있는 제로 헝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얀마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자신들의 간식살 돈을 꼭 참고 그 돈을 모아서 식량보급이 끊겨있던 미얀마의 작은 도시에 도시락 꾸러미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환경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신호등 캠페인에 참여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 계속해서 환경을 위한 실천을 이어나가자고 격려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로 눈을 조금 돌려보면 젠들과 다른 청년들 몇 명이 함께 며칠전 영국글래스고에서 열린 26회고 26이라고하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맞춰서 영국 웨일스에서 다른 다양한 단체에 속한 청년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행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패스웨이에 참가 한다는 것은 이렇게 크고 작은 위기에 대응하는 모든 좋은 사례들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나누서 담아내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는 종교가 현대위기에 직면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짧지만 굵지도 않은 그렇지만 정말 그런 삶의 경험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일치를 한다는 것은 이런 국적 문화 종교 경제적 여건 등 세상이 자꾸만 만들어내는 장벽을 넘어서서 그대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젠들의 목표이자 모든 종교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들의 목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위기속에서도 이러한 일치를 건설하고 서로 다른 민족 문화세대 그리고 많이 가진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 입니다. 또한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될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가 정말 결속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일치와 조화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일치를 무기로서 모든 종류의 다 부당한 차별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를 겪는 이 시간들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이런 다양한 위기들이 오히려 더 수면위로 드러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재산의 40%가 이시계를 지나가면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 전 세계의 절대 빈곤 인구, 하루에 3달러 미만으로 살고있는 빈곤인구는 더욱 더 결핍되어져 갑니다. 한 나라에서는 백신이 남아서 버리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마스크도 없이 바이러스가 아닌 배고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수치들과 국제적인 현상 앞에서는 우리는 각자 개인이 모두 너무 작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종교를 가진 우리들은 이렇게 거대한 것을 이루어 낼 가능성이 있는 작지만 정말 단단한 프로젝트들. 예를 들면 내일 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눈다든가 하는 이런 실천하는 작은 일들로 이 위기를 극복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역시 저는 그 작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는 이재선 천도교 청년회 청년회장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선 네 천도교 청년회장님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주시고 주제 스피치를 부탁드립니다.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천도교 청년회장님. 네. 그러면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여주 원불교대학원 대학교 학생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여주: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교역자 양성기관인 원불교대학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여주라고 합니다. 세계의 식량계획은 인류를 위협하는 3C를 기후변화(climate change),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그리고 분쟁갈등(Conflict)이라고 말합니다. 화성연료의 연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대기중 이산화탄소가 인류역사상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표면 평균온도가 상승해서 해수면 상승, 폭염, 가뭄, 홍수, 폭풍 등의 기후변화 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몇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명의 일상생활을 중단시켜서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과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을 유발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개인,사회,국가,기업,민족,계층,종교 등 강자와 약자가 대립하고 있고 사회도덕성 붕괴 현상이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적위기는 정치에서 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상적 위기는 우리 삶에 직결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우려합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 깊이 자리잡아 이 모든 위기를 만들어 내는 근원적인 위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의 기저에는 더 염려스러운 현대의 정신적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의 현상적 위기는 결국 정신적 위기가 외형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근원이 되는 위기의 해결에 더 고심하고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모든 현상적 정신적 위기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신의 물질 노예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사람의 정신이 물질의 지배를 받아 노예화되었습니다. 이에 물질숭배의 사상이 전 세계에 팽배하여 종교는 그 신앙의 대상을 물 신왕에게 빼앗긴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변화도 코비드 나인틴도 모두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정신의 물질 노예화 현상에 기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 노예화 현상에서 파생된 현대의 정신적 위기는 인류가 욕심과 물질에게 참된 본성을 도둑맞고 물질에 중독되게 했고 진실이 실종되게 했습니다. 오늘날 가정 사회국가 곳곳에 거짓이 만연하여 진실을 압도해버리는 것이나 술 마약도 박게임 인터넷중독 등 각종 물질 중독이 날로 치성해 가고 있는 현실 역시 현상적 현대 위기의 근원이 됩니다. 물질의 소유가 수단이나 목적이 된 가치관의 전부 현상 역시 현대의 정신적 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신적 위기는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인성이 망가져서 각종 마음병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질문명의 발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자신의 인성은 방치해서 망가뜨려 놓은 채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법 범죄가 폭주하는 현상도 인성이 망가진 대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개인과 사회국가가 서로 서로 은혜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해를 입은 것만 생각해서 서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해서 상극과 대립이 극심해져서 세계 모든 분쟁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 역시 크게 우려되는 현대의 정신적 위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현대의 현상적 위기와 정신적 위기는 서로 결합되면서 인류를 더 큰 총체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어서 이것을 방치하다가는 인류는 구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현상적 위기는 정신의 물질 노예화라는 근원적 위기와 여기서 파생한 정신적 위기에 기반해서 발생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현상적 위기인 분쟁 기후변화 강악 대립 사회도덕성의 붕괴 등의 극복은 정치가 주가 되어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신의 물질 노예와 현상과 그의 파생된 정신적 위기는 종교와 도학에 책임이 있고 종교가 주가 되어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종교가 연합해서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인류 각자가 물질에 빼앗긴 마음의 주권을 되찾는 일이고 욕심에 도둑맞은 참된 본성과 가치관을 되찾는 일이며 생존경쟁으로 망가진 인성을 회복하는 일이고 인류 각자가 은혜를 발견해서 원망과 상극과 원수를 감사와 상생 은혜로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종교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대동화합하고 연합해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해결에

함심 협력할 것입니다. 911 테러와 이후 일어난 이라크 전쟁 등이 시사하는 점은 오늘날 세계의 비극은 국가 간의 갈등보다 종교 간의 갈등에 더 근원되어 있고 인류를 고통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은 외적인 빈곤 무지 질병에 기인하는 것보다 정신의 빈곤 무지 질병에 더 크게 기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는 un으로 연합해서 현안 해결에 힘쓰고 있지만 종교는 연합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한마음으로 현대의 위기 극복에 함심 협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가 대동화합하고 유엔에 대등한 종교연합 기구를 창설해서 인류의 정신과 육신의 빈곤 무지 질병 해결에 한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세계종교인 가운데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열정과 세계의 일을 내일로 하는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치할 수 없는 현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종교청년들의 화합에 힘쓰는 일을 해왔습니다. YCUR 이라고하는 뉴스컴퍼런스 유나이티드 릴리전스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타종교인들과의 교리를 배우고 서로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장벽없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모든 성인들이 종교의 가르침을 펴신 본의가 표현만 다를 뿐 고통에 빠진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종교청년이 하나로 화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함심 협력해서 연합 성과 대표성을 갖춘 기구를 창설하여 세계 평화를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류에 묶여 있는 그 마음 발을 개발하여 새롭게 거듭나도록 각 종교의 교리를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주변에 확산하는 새마음 새 삶운동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존경쟁에서 낙오된 실패자가 방치되는 세상이 아니라 큰 희망과 용기로 다시 자력을 양성하게 도와서 새 삶을 살도록 힘써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근본적으로 현대의 위기에 대해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렬히 자각해야 합니다. 전에 없이 발달한 물질문명에 대등한 정신문명을 건설하지 못해 온 것은 전적으로 우리 종교의 책임입니다. 성현들의 진정한 큰 사랑과 큰 자비는 개개인이거나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지적인 활동도 물론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 인류와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또 고심해야 합니다. 종교가 이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에 대등한 종교 연합체가 절실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시대적 요구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복: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는 이재선 천도교청년회 청년 회장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안녕하십니까? 천도교청년회 회장 이재선입니다. 아까

통신이 끊겨서 이렇게 늦어진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대 위기 속 종교청년의 역할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천도교의 전염병 극복 사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도교를 창도하신 수원 최재우 대신사께서 하늘님과 처음 대화를 하셨을 때 하늘님께서는 나에게 연구가 있으니 이 연구를 받아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도교는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건진다고 하는 제일 질병이라는 큰 사명으로 삼고 있어서 전염병이 만연한 당시 사회에서 신앙 지침으로 위생보호에 힘썼고 이것이 바로 신앙을 굳건히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과 이승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천도교 경전 중 17편에 달하는 내용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채팅창에 살짝 동의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전염병을 실제로 극복했던 사례를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해월 최시형 신사께서 동학을 하면 괴질도 물러간다는 신화를 만드셨습니다. 당시 1886년 4월 신사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금년에는 악질이 크게 유행할 것이니 도인들은 더욱 기도에 힘쓰고 특히 청결을 주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해 6월에 실제로 콜레라가 번져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과정에서 천도교 당시는 동학이죠. 동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사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이 퍼지면서 동학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내린 신앙 지침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용한 물을 땅에 부을 때 멀리 뿌리지 말고 가르침을 멀리 뱉지 말고 가르침을 멀리 불지 말고 그리고 침과 코가 땅에 떨어지거든 닦아서 없애하라 이런 이렇게 버릴 물이나 침을 함부로 뱉는 것은 천지 부모님 즉 하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으니까 조심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내가 어떻게 그러면 생활 실천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잘 때는 잡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일을 할 때는 일하러 갑니다라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하느님께 보이라 그리고 먹던 밥을 새 밥과 섞지 말고 먹던 음식을 새 음식과 섞지 말고 그 먹었던 음식은 따로 두었다. 배고프면 먹더라도 조심해서 먹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이 당시에 생활 지침안에 신앙의 수칙 안에 위생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하셨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전염병의 위험에서 건졌습니다. 현대 과학적 지식으로 살펴보면 이생을 깨끗이 하는 생활수칙을 신앙의 영역으로 들여와서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천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스승님의 지침에는 과학적 원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기 도와 수행이라는 영성에 기대어 전염병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의지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병희 선생님께서 신 사 주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반포하

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1910년입니다. 서울시내 폴레비아가 유행해서 교인들이 걱정하는 말이 듣고 의암성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직도 하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신앙심이 빈약하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과 귀에 들리는 이론만을 숭상하다 보니 유행병이 무서운 것이요 우리 도가 창조된 이후로 얌은뱅이가 걸음을 걷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동서양은 물론하고 사람들의 정신이 과학과 철학으로만 생각을 하니 인심이 각박해지니 종교 신앙의 근본을 하늘님을 잊지 않는 것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벗어나는 보통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종교체험을 경험하곤 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하면 병을 낫는다고 한다면 그건 미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기도 와 수행을 겸하면서 생활방식을 바꿈으로써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으로부터 이겨낸다는 것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현대인 기와 종교청년의 역할입니다. 저는 다르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종교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방역조치로 인한 종교의식 불참 의지 속으로 인한 생활습관 변화 즉 루틴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관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종교가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가난한 측면에 대한 기사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청년들을 인터뷰했던 청년 학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특정지역을 일컫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한 쓰는 표현이라고 하더군요. 그 인터뷰를 보면 어릴 적 종교를 접한 청년들이 교회에서 가르친 윤리의 경험과 다른 교회 모습 때문에 실망했고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게 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같은 간극이 해소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로 복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 기피 현상입니다. 종교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안히 주지 못하는 상황이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도리어 또 다른 관계 맺기에 대한 요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오늘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게 그 이유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위기는 기후변화 질병의 창궐 경제 불균형 등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의 말씀처럼 현대사회의 이기와 어려움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를 타파하겠다고 사실 종교가 앞장서서 여러 실천행동을 해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플라스틱 재활용하기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사회시스템은

지금도 플라스틱을 무한 생산 중이고 무한 배출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가기 위한 그 노력의 양은 실제로 발생하는 양의 몇 프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역할 그중에서도 청년의 역할이라는 말에 회의감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왜 이 모든 것을 특히 총기 청년들이 이것을 책임져야 할까

도리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난한 청년들을 양산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종교는 그리고 종교청년들은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이어가고자 더욱 작은 실천을 지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일 것입니다. 의암 선사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3.1 운동을 준비하시면서 기독교 불교 유교를 막론하고 함께 하기를 청하셨고 그때 다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결의의 가슴에 독립 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3.1독립 선언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종교청년의 역할도 여기에 있을 것 입니다.

세상에 앞서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작은 씨앗을 심는 일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의의가 될 것입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은 만큼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 신앙공동체 회복 그리고 사회 변화를 위한 헌신이라는 종교인들의 목표를 위해 종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까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플랫폼의 변화를 고민해야 됩니다. 각 종교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와 교사 그리고 성지나 성물과 같은 아주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은 사람들이 최근에 느껴지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같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변화를 인정하고 변하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제 마지막 발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왜 인물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그대가 먼저 건전한 인격체가 돼라 우리 종교청년들이 먼저 성 각자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자고 이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종교 청년들을 향한 힘찬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마츠다 사야코 입정교성회 일본청년 분의 주제 스피치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츠다 사야코: 네 감사합니다. 입정교성회 마츠다 사야코입니다. 먼저 서두에 제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입정교성회 항림분과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항림에서는 진정한 신앙인을 목표로 불교 우리들이 믿고 있는 법학 영에 대해서 종교 간 대화 등에 대해서 등 매일 여러 가지를 배우고 포교 실습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항림에는 일본인 뿐 아니라 해외의 입정교성회 멤버들도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함께 배우고 매일 새로운 자신 새로운 가치관을 만나면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류의 위기와 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난달 열린 ACRP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 도쿄 대회에서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원봉사자로서 ACRP의 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거기에는 각국의 종교인들 여러분들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인신매매 교육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중에도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종교인 여러분들께서 현재 상황 그리고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느낀 점 평화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회 이틀째에는 분과회라는 모임 그룹 모임을 해서 전부 4개의 분과회가 열렸습니다. 그중 현재 미얀마의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분과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과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과회가 끝난 후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중에서 미얀마 참가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얀마 참가자분은 세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움직였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났다며

그녀 자신의 생각과 미얀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현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미얀마에 살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어려운 고민을 들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나 미얀마 여러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계의 여러 가지 위기를 보고 모른척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나의 일로서 받아들이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자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나 이외에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에게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종교자들이 해야만 하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참가했던 분과에서는 인권에 관한 디스커션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계

의 많은 문제 위기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교육의 문제는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고부터 조금 있으면 2년이 되는데 아직도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도 있고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캄보디아 NGO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현재 도시에서는 학교가 시작되지 않은 곳이 많고 지방에서는 학교가 시작되었지만 개학을 했지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학교에 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휴교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그중에 돈을 벌러 나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가 조금씩 개학을 하기 시작한 지금도 아직도 돈을 벌러 나가있어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인턴을 하고 있을 때는 복학을 위한 지원을 주로 했는데 제가 인턴하던 기간에 지원을 받아서 복학을 했던 아이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NGO의 지원으로서 기부를 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기도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ACRP의 대회 가운데 기독교 여러분들께서 마더 테레사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이야기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학림에서의 강의 중에서 종교인은 글로벌하게도 로컬 하게도 글로벌로 하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가 있는 곳에서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직접적으로 세계의 위기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반드시 연결되어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종교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여기까지 해서 우리 종교청년들의 주제 스피치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종교청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후 위기도 여러 번 나왔고 또 차별이나 불평등한 경제구조 코로나 또 교육도 나왔고요 정신의 물질 노예와 현상 마음병의 심화 같은 다양한 현대의 위기에 대해서 종교청년들이 짚어주셨습니다. 또 청년들이 아주 힘주어 종교의 역할에 대한 어떤 통렬한 자각이나 또는 성찰에 대한 목소리도 내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토론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대담 시간에는 서로 주제 스피치 제안했던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이웃종교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대의 위기에 대해서 종교

청년들이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방치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위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스피치 때 발언을 하지 않은 우리 마사코 마사키 아라이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사키 아라이: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국제종교 자유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라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과 함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세계의 평화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교류를 해왔습니다. 또 한국의 학생들 한국의 학생들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교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테마인 인류의 위기에의 한 가장 인류 위기에 있어서 가장 방치할 수 없는 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격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격차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많은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도 부모의 연봉과 또 아이들의 학력격차에 연계가 있다.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저는 iar의 활동을 하면서 그 슬럼가에 갈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슬럼가를 가보면 많은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계셨는데 이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고 잘하신 분들인데 자신들이 학교를 거기서 세웠습니다.

일본 NN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 3N으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드신 겁니다. 그 슬럼가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들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당시에는 정식 학교로서는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상당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박해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정식적인 학교로서 인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의 슬럼가에 있는 학생들도 이곳에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배웠던 걸 경험했던 게 바로 16살의 소녀 내가 있었는데 이 열여섯 살의 소녀도 큰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느꼈고 그곳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저한테 앞으로 가능한 일들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서로 서로 배우고 이런 식으로 경험을 나누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서로 많이 공부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과 교류를 하면서 저도 그래서 앞으로 계속이 교류를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전혜복: 이어서는 주제 스피치 발언을 했던 순으로 같은 질문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빈 청년 부탁드립니다.

백현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이제 가장 큰 위기라고 한다면 역시 기후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위기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나 서로에 대한 혐오나 이제 분노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 위기라든지 다른 모든 공통적인 문제에 있어서 연대할 수 없고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자본을 다시 쌓아가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까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전혜복: 기후를 짚어 주시면서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신뢰에 대해서 더욱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성영 청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여러분들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뭔가 교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알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패스웨이(Pathway)라고 했던 것에서 그 마지막 3단계가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정말 많은 활동들이 각자 자리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지쳐서 그만하고 싶게 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활동을 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그냥 각자 서로 자리에서 존재한다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건이 무관심을 타파해서 서로 이렇게 더 나누고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빨리 위기를 타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가능성 희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나누고 협력하고 하는 데서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불교 조여주 청년 부탁드립니다.

조여주: 네 앞에 토론자분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 위기를 외형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현상적 위기 기후 변화 분쟁 이런 현상적 위기랑 내면으로 잠재되어 있는 정신적 위기로 대별을 해보면 현상적 위기도 해결이 너무나 시급하죠.

기후변화나 이런 전염병 문제나 해결이 시급한 큰 위기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큰 위기가 정신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상적 위기가 그냥 발생한 게 아니라 정신적 위기에 기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신적 위기가 현상적 위기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를 먼저 이제 다스리는 것이 더 커다란 문제 해결에 이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이 많은 정신적 이익의 근원 아까 이제 박헌빈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불안이나 이런 분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수많은 마음 병들 이런 많은 정신적 위기가 있지만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과학 문명이 발달되는데 물질의 세력이 엄청 세지는데 사람의 정신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 물질의 노예 화가 되어버리다 보니 사람이 종교보다 물질을 더 생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물질을 더 손상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치성하는 욕심을 다스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병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 마음병들이 또 근원이 돼서 기후변화나 코로나바이러스 이런 팬데믹 같은 걸 다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가장 근원적인 위기 정신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신적 위기에 또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신의 물질 노예 화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좀 대변을 해본다면 정신이 물질 노예화됨에 따라서 어떤 정신적 위기를 발생시키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든 인류가 이제 막 욕심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순수한 영성이나 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욕심만을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팬데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근원적 문제 때문에 인류가 서로 서로의 잘못만 보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분쟁이 또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육강식의 생존경쟁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쟁에만 치달으면서 사람의 인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실패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들이 방치되어서 화생이 불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장은 어떻게 물질에 빼앗긴 정신의 주권을 회복할 것인가가 우리 세계 종교가 해결해야 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한 종교만의 힘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가 책임과 의무를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혜복: 정신적 위기를 핵심적으로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정신이 물질의 노예화되어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많은 마음병이 더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뭐 기후나 이런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정신적 위기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협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종교청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천도교 이재선 청년.

이재선: 오늘 목이 많이 잠겼네요. 여기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사실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방치할 수 없는 얘기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전 인류의 생존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존회라는 것이 다양한 게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세상을 나온 것은 하느님의 어떤 선미가 작용이 된 것인데요.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오지만 사실은 8~90세 까지 사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불과 1년도 못 살고 죽는 어린아이가 있고 또 학대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실제로 희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람이 어떻게 생존해 가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이 사회가 정말 험악해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가장 큰 위기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라는 것은 아까 우리 조여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정신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천도교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유무 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유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게 한 일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어서 채워줄 수 있는 관계 결국 사람과 사람 간에 관계성의 회복에 아주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결국 앞서 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대의 힘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건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죠. 이 자원을 어떻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서로 의논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것을 메꿔가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의 생존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서로 부족한 부분을 나누어서 채워준다고 해주셨는데요. 또 이걸 넓혀서 종교청년 간에도 서로 협력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정교성회의 마치다 사야코 청년.

마치다 사야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의 가장 큰 위기라고 말씀하라면 말을 하자면 사실 하나만을 꼽을 수가 없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고립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가 제일 1순위를 정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표면화되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근원에 있는 것들 살펴보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근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라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도 그 근원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가 현재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알릴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위기가 상당히 큰 위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마치다 사야코 청년은 교육을 가장 핵심적이고 또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으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종교청년들이 각 소속된 종교는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에 아주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성자의 마음이다 그 씨앗으로 심겨있어서 한 편으로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이어서는 다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종교청년들의 발언 중에서는 종교가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잘해야 한다 통렬히 자각해야 한다 이런 힘주어 말하는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종교의 역할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또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대에 이렇게 많은 위기가 우리 종교청년들 눈에도 보이는데 그렇다면 종교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또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또한 말씀해 주신 어떤 위기들에 대해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사키 아라이네 일본 청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키 아라이: 감사합니다. 저는 종교가 현대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 가운데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믿는, 숭배하는 불완전상도 기술이 보여주는 대답을 신봉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문제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공허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올바른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종교라든지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종교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

이 현대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정신이 소외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현빈 청년 순서대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고 있는가 원인과 또 어떤 여러 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와 불평등한 경제구조 이런 위기에 대해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백현빈: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종교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원인으로는 이제 종교 자체가 어쨌든 조금 기득권이 되고 권력지향적인 모습이 되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런 현상적인 위기 현대의 위기에 있어서 종교와 종교청년의 역할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기득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소수자와 약자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의 가르침이었고 또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들을 향해서 소수자들을 향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치단결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종교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중 교가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종교청년부터 가장 밑에 있는 우리들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혜복: 종교청년들이 아주 기대가 크고 종교청년들을 향한 기대가 크고 아주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콜라레의 이성영 청년.

이성영: 앞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말 건강한 때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네 영상입니다.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씨앗들은 진짜 진실되고 정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을 저희가 풀어 나가는 방식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은 계속 이거를 포기해야돼라는 생각이 있다가도 어떤 현실적인 거 앞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씨앗에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마음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종교의 역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다른 종교의 이제 역할들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리스도

교에서 좀 경험을 나누자면 그리스도교의 초대 정말 2천 년 전에 일을 했을 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정말 구분이 하나도 없었고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 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사실 저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런 초대 그리스도교가 있었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옛날에 교회가 종교가 병원의 역할을 했고 왜냐하면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의료가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면 이제 성당에 가는 거죠. 선장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교육을 또 하고 싶으면 그것도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격차와 신분 격차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로 돌아와서는 아까 조여주 예비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거 외면적인 거를 이제 종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넘어섰죠. 어떤 정치라는 게 굉장히 발달을 하고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정치는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정치가 어떤 사람들의 외적인 거 복지를 증진시켜주고 교육을 주고 의료를 주고 한다면 종교는 정말 마음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조금 더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지만 이게 딱 이렇게 잘라질 수는 없는 거죠. 같이 서로 소통을 하고 정치를 정치는 저렇게 하는 것이야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도 종교는 조금 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정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청년이 한 명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단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이성영 청년의 의견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치와 대등하게 어떤 종교가 종교 고유의 영역에서의 그 역할을 다해야 함을 또 느낄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불교 조여주 청년.

조여주: 토론자님들의 정말 깊은 통찰이 담긴 발언들에서 정말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제 많이 느껴지고요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현상적 위기랑 정신적 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 노력을 정말 깊이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여전히 수많은 전쟁과 테러의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치보다 더 많은 경우에 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종교인으로서 근데 사실은 그 현대 위기 극복에 있어서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식을 접근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방식을 고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헌빈 토론

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오늘날 종교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새로운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un이라는 국가연합정치의 연합체가 결성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인류가 두 번의 세계대전이라는 가장 참혹하고 한 충격적인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명의 생명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폐어에 내몰려서 이제 울부짖었죠. 그 과정에서 정치방면에서 자주 평화 평등에 대한 큰 각성이 생깁니다. 그 때문에 세계국가 그러니까 정치가 그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전쟁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고 공동번영을 위해서 국제연합을 창설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 방면을 생각을 해보면 물질의 노예로 전락을 해서 정신 주체의 비극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종교로 인해서 수많은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걸 목격을 하면서도 종교는 함께 연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포 콜라에 운동에서 일치 연합하자고 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연합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합을 하려면 그 연대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어떻게 목소리를 하나로 합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인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실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떤 통일된 협력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유엔처럼 요 근데 종교 방면에 유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종교가 연합을 해서 현대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종교가 낱날이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힘이 없는 것이지 하나로 뭉치면 유엔보다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선 세션에서 이제 정치인분들께서 유엔 사무처장님께서 종교 연합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신적 위기에 근원되어 있는 현대 위기는 정치적 유엔에만 맡겨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 콜라에 토론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종교가 주역이 되어서 해결할 일입니다. 종교 본연의 역할은 우리 정신의 빈곤 무지 질병을 퇴치하는 거고 정치의 역할은 인류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건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 해결에 정치와 종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는 게 필수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에도 un의 대등한 협의체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우리끼리도 청년들끼리도 종교연합 기구를 형성해서 결국엔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혜복: 오전 세션에서도 다루어졌던 내용에 더욱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종교 국제연합과 대등한 어떤 종교의 통렬한 자각하게 종교도 연합체에서 합심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선 천주교 청년 회장님 들어봅니다.

이재선: 다들 저와 같은 생각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거나 그러면 종교가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발제 때도 말씀드렸듯이 손병희 선생님께서 이 삼일 운동을 준비하시면서 왜 3.1 운동을 준비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실제로 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의 사람들 사람 안에 내가 이야기하는 독립의 그 정신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종교의 역할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종교인들의 역할은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속에 자연 분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게 새로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 들 그로 인해서 그 실천들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이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개혁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요 정신개혁 즉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그 나태함과 그 게으름을 좀 더 근면하고 좀 더 그 세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 하겠다고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돌리는 작업이 그것이 바로 정신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교인들의 영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도식화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희망차게 바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 그 작은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토론을 거듭해 갈수록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우리 종교 역할로서 정신개혁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실천과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츠다 사야코 청년 들어보겠습니다.

마츠다 사야코: 감사합니다. 먼저 정치가 할 수 있는 일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교인들에게는 글로벌하게도 로컬 하게도 활동할 수 있는 것 구경을 넘어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취는 할 수 없는 큰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교가 인류의 위기를 위해서 해야 하는 역할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종교인으로서 세계의 위기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물론 기도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무엇이 가능한가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입정 교성회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 입니다. 그 운동을 떠올렸습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는 세계의 기아 분쟁으로 인해서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한분의 식비를 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자신의 공복을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그 괴로움을 같이 느끼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화를 비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한 만큼의 식비를 현금으로 하는 것이 러한 정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1일 15일 하고 있으며 이렇게해서 모은 돈은 입정 교성회 유메포켓 혹은 아프리카를 위한 운동등 국내외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행동 경험을 하는 것은 어려워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단순히 지원을 하는 쪽 후원을 받는 쪽이 아니라 서로 평등하게 서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행동을 해 나가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이렇게 패널로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얻어서 제가 그러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나라고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재가 진정으로 운동을 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하거나 공복감을 그냥 아 배고프네 이라고 끝내거나 기여로 인해서 괴로운 사람들까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었나라고 되돌아보았습니다. 종교의 역할을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성영 씨도 이번 기회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종교 문제는 해서 되돌아보면서 조금 더 세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에서 전 세계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의 역할 그리고 종교의 저희들의 역할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마지막에 자유발언 마무리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교 이재선 청년이 말씀하실 때 언급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이 사실 나라의 자주독립이라는 공통적인 목표 아래 종교의 우를 넘어서 정말 하나가 되었던 역사적인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정말 연합하여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는 종교도 없고 그 울도 없고 단지 우리 한나를 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하나를 향해서 이제 함께 힘을 합쳤었는데요. 양일간 사실 토론하면서도 이번 세계 시민회의에서 대담을 하면서도 종교 간 대화해야 한다 교류해야 한다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스피치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종교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종교가 연합하면 현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 종교가 이렇게 3.1 운동 때 했던 것처럼 연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또 현대의 여러 공통과제들 말씀해 주신 여러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지금도 3.1운동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현대 위기를 극복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시너지가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가 있으시다면 또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라이 마사키 청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마사키 아라이: 네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세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사실 우리 종교인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자라는 단순한 그것 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분들까지 함께 우리가 이끌어서 함께 이끌어서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종교가 다다르고 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으신데 종교가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 또 중요한 것들 각각이 생각하는 목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혹은 우리가 목적이고 같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분들까지 이끌어서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목표로 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일치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세계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이어서 또 다른 청년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때 그랬던 것처럼 3.1운동식 종교연합이 가능할지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왜 종교가 연합하면 현대의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기대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백현빈 청년.

백현빈: 3.1운동 때 이제 모든 종교들이 같이 모여서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민족운동을 펼쳤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완전한 종교의 연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신교랑 이제 천주교랑 연합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교연합들이 청년 단위에서 조그맣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확대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가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들이 있고 또 그 종교라는 것이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잘 만져주고 잘 이끌어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위기들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교연합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대다수의 종교지도자들이 본인들의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기득권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움켜쥐기 위해서 종교연합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 청년 단위에서부터 이런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제 머지않아서 종교가 이제 아까 원불교 청년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연과 같은 그런 기구가 설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복: 청년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성영 포콜라레 청년

이성영: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도 저도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네 이렇게 막 말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 있겠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대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게 이제 세계시민회의잖아요. 그래서 세계시민이라고 했었을 때 저는 제가 물론 그 3.1 운동에 대해 정말 교과서로만 이렇게 배웠고 어떤 거였는지는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어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좀 그럴 수 있지만 여기 지금같이 우리가 한국 일본이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 이제 청년들 다른 분들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당시에 제가 그게 가능했던 건 어떤 같은 동일 의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아까 저희가 계속 토론했던 것처럼 어떤 마음이 이어져 서있었던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끈이 어떤 내가 우리의 공동의 적이 있어 이걸 물리쳐야 돼 그럴 때만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한 번쯤 사람을 살면서 그런 어떤 되게 행복했던 순간들 내가 정말 마음이 충분하게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고 그거를 같이해서 그 순간에 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때 이렇게 그게 이어진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꼭 차있을 때 그래서 그 끈이다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뭔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위기도 같이 극복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그 3.1 운동에 참가하셨던 저희 선조님들도 같이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1 운동도 사실 그때는 종교 갈등보다는 그런 기득권의 갈등이 더 심했잖아요.

그런 선비와 그런 노비들의 상민과 그 종이가 이런 것들이 심했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어서 그런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기적일 수 있었던 내가 너를 위하고 나도 너를 위하고 그래서 이 세계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 세계가 우리나라

이렇게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세계는 정말 다 하나 우리가 모두 다 하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마시킴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교황님께서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가 없이도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성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문이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나면 가톨릭은 이제 오래된 종교이고 굉장히 보수적이죠.

저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되게 많은 질문을 많이 소고를 했었는데 그 문을 열어줬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 말로 하면은 그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씨앗이 있는 사람들 세상 곳곳에서 조용하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착하게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정말 어떤 그런 가능성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오늘이 종교청년들의 마음도 그 실로 끈으로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여주 원불교 청년.

조여주: 방금 이성영 토론자께서 종교가 진정으로 연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나의 목적으로 뭉쳤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유엔에 대등한 종교연합 기구를 어떻게 창설할지 고찰을 해보자면 국제연합이 어떻게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에 2개월 만에 엄청나게 단기간에 빠르게 창설될 수 있었는지 그 전처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세계의 영구 평화에 대한 세계의 평화가 영구적으로 지속되게 하기 위한 정치가와 지성인들의 공통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영구평화에대한정치가와지성인들의빠져른책임의식이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을 창설하지 않으면 3차 대전으로 이 세계가 파멸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확정치가 연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에도 종교연합이 있었습니다.

바로 3.1운동인데요. 3.1 운동은 종교지도자들이 연합을 해서 독립과 독립을 위해서 화합과 양보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꺾기한 피폭량 무저항 운동인데요. 그런데 이 3.1 운동을 위한 종교연합 역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결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결의 자주독립에 대한 종교지도자들의 공통된 목표가 있었고 결의 자주독립에 대한 종교인들의 책임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독립을 일으키지 않으면 결의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1운동에서 종교인들이 아까 말한 기득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뭉친 모습이 종교인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이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될 수 있었던 배경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연합이 가능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를 해보면 우리도 이 모델을 따라서 현대 위기를 현대 위기 해결을 위해서 종교연합 기구를 창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교를 모두 뛰어넘어서 정말 가장 근원적인 위기 사람의 욕심을 행복받고 인류 정신이 반곤해지고 무지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있다는 그거를 퇴치하자는 하나의 통일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대화만 하고 회의만 해서는 위기 해결은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곳에서 수많은 좋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또 모이고 상설적으로 모이고 체계적으로 모이고 지속적인 조치가 취하지 않으면 않는 취해지지 않으면 하지 못한 만 못합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활동은 수환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혹은 또 국제적인 활동만으로는 그리고 몇몇의 종교만 이렇게 같이하는 그런 활동만으로는 현대 위기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전 인류 대국적으로 관찰을 해서 전 세계 전 인류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세계적인 종교연합 기구가 창설이 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유엔과 대등한 연합 성과 대표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면 저는 이 세계가 물질문명도 이렇게 발달을 했지만 정신문명도 그에 맞게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낙원에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헌빈 토론자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요. 그동안의 종교연합이 우리 입점 고성회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종교연합이 그동안 계속 어려웠던 것이 기구 창설이 어려웠던 것이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결렬이 많이 됐던 것도 아까 말했던 종교가 이제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종교의 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부끄러운 현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 콜라에 운동에서도 모든 장벽을 넘자고 하지만 가장 넘기 어려운 게 종교 장벽이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정말 현대 위기에 대한 우리 종교의 책임과 의무를 정말 너무 통감하고 너무 아프게 자각을 하면 우리가 기구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혜복: 종교의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여 이를 위해 상설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 그리고 대표성을 띤 정말 종교연합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천도교 이재선 청년

이재선: 지금 다양한 말씀들 많이 나오셨고 사실 다 공감하고요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적을 두고 이

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립선언서를 봐도 알겠지만 일본을 적대시하고 있지 않고요 그들 스스로에게 우리 조선민족은 우리 스스로 자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생각하기도 바쁘다는 표현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똑바로 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드러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당시 독립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냥 천도교만 노력했고 불교만 노력했고 이게 아니라 각자 그 노력들을 하고 있던 과정 중에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낚아채는 게 아니고 갈 거야 이게 아니었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대전제를 어쩔 수 없이 나의 종교와 이웃에 있는 다른 종교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게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은 함께 갈 수 있지만 나오는 조금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가는 그 관용의 정신이 3.1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도 원불교에서 UR 운동을 3대 종사인 대산 종사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강원용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송월주 스님 같은 분들이 이 종교 간에 서로 대립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서로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갔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다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고 하면 종교연합의 운동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평화로운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이번 질문의 마지막으로 마치 다 사야코 청년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츠다 사야코: 네 감사합니다. 종교가 연합을 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이 정말 공감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하고 그리고 각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모두가 공통되게 그 소중함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들까지 소중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가능한 세계가 된다면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도 다를 수 있고 또 협의를 하는 모습이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불교를 말하자면 모두가 불교에서는 모두 스님이 배우고 기독교에서는 목사님께 배우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같은 생각을 근처에 가지고 있고 이로써 연계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종합적인 종교단체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한 두 청년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자유 마지막 발언을 혹시 하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자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여주 청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여주: 모두가 지금 각 종교는 다르지 만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앞서서 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무엇이 있냐면 지금 종교들이 함께하거나 아니면 각 종교들이 국제적으로 해 나가는 활동에 의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의제를 살펴보면 유엔의 현안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인권문제 개발 문제 기후 문제 빈곤문제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이제 국한이 되어있다는 주로 국한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크게 대별해보면 유엔 이하는 일을 저희도 이렇게 다 같이해주고 있는 거 같아요. 종교의 미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유엔이 하고 있는 일을 따라만 가서는 더 큰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근원된 문제인 우리 종교가 다뤄야 할 마음의 문제 그리고 정신의 위기 이런 것들 우리 종교가 모두 정치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다면 그 마음의 문제 가장 근원의 문제는 인류가 어디에 의지를 해야 하고 어떻게 스스로 치료를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너무나 방기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 본연을 잃어버리고 이제 외형적인 것에만 더 힘을 쏟고 있었던 건 아닌지 외형의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에 충실하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을 하면서 그걸 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 사다코 우리 토론자께서 정말 잘 말씀해주셨듯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 종교의 본질은 지금 인류가 너무나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고통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고 전 세계 전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병든 세상을 치료해 나가는 것이 우리 종교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려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학에서도 내과와 외과의 전문분야가 있듯이 이제 외과는 이제 돌돌 뭉쳐있지만 내과는 뭉쳐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과 함께 종교연합이 창설이 돼서 두 개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면 이 세계는 우리가 꿈꾸는 전에 없는 엄청나게 문명된 세계정신문명이 더 발달을 해서 물질문명을 선용하는 그런 문명의 세계를 저는 건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전혜복: 청년들끼리 이제 손뼉을 치고 호응을 해주는데요. 한 두 분 정도 마지막 한 분 정도만 더 마무리 발언하고 싶으신 청년 있으면 자원해서 받고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 발언하고 싶은 청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네 이재선 청년께서 고민 끝에 손을 들었습니다. 1, 2분 정도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재선: 오늘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야까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전제해간다면 좀 더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일들을 좀 더 편견이 적은 그리고 어떤 확고한 끈대가 되지 않은 청년들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해 가면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복: 아주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도 사실 청년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대담 동안에 그런 우리 종교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자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희망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현대 위기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그간 있어 왔지만 정말 종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데 우리 종교들이 합심 협력하여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해결해 나가고 또 추진해 가는데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좋은 이야기를 나눈 대담으로 끝나지 않고 추후에 지속적이고 또 더욱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청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집단지성"

행사일정 2021. 11. 20.(토) 10:00 - 11.21.(일) 16:00 **행사포맷** 온라인 행사
행사진행 **참여방법** 원포털에 공지(won.or.kr)

주최 |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 원불교 UN사무소,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불교기독교연구학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연합 후원재단 원음방송 한울안신문
주관 |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협력 | 평화, 국제자유종교연맹 일본지부, 종교연합 이니셔티브 문의 | Tel. 02-6960-8918 Email. wonintl@won.or.kr 홈페이지 | www.iccg.co.kr

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ICCG)는 세계평화를 위한 집단지성 플랫폼으로서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종교인 및 평화활동가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회의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조연설
아닐 사카(세계불교대학 총장)
리베라토 바우티스타(유엔NGO협의회 대표)

주요 연사
세션 1. 평화대담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세상을 위한 더 나은 회복"
세션 2. 지식대담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을 위한 종교간 집단지성"
세션 3. 글로벌대담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의식에 답하다: 세계정신과 세계시민성"
세션 4. 고위급대담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연합과 종교연합"
세션 5. 청년대담 "한일 청년종교인 대화"

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및 2020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유튜브 영상은

원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라고 검색하시면 자료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클로징 세션. 종합토론

“종교, 세계시민성, 하나의 세계”

- 좌 장 -

이사호(국제자유종교연맹 일본지부 청년자문관)

- 패 널 -

황상원(원불교 종교연합추진위원회 공동사무차장)

이순영(포콜라레운동 종교간 대화 고문) 外

이사호: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IARF 일본 지부 청년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입정 교성회라는 불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원불교 교무님, 플로어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두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큰 산을 예로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백두산이 있고 일본에서는 후지산이 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1시부터 일본과 한국의 청년들이 발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젊은 이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던 것으로부터 UN 전 사무총장 김원수 선생님, 오랫동안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황상원 원불교 종교연합추진위원회 사무차장님께 오늘의 주제인 종교, 세계 시민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One world, world is one’ 세계는 하나, 하나의 세계. 이것은 상당히 느낌이 색다른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지를 포함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황상원 교무님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황상원: 반갑습니다. 원불교 종교연합추진위원회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황상원 사무차장입니다. 먼저 저는 코로나로 인해 내 가족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리고 아버지, 혹은 삼촌, 직장동료들까지 당하신 모든 아픔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에서, 그리고 저희 지성인들은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차원에서 정신이 번쩍 뜨이는 각성의 마음으로 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가 고인들에게 묵념을 표하고 또 함께 모인 청년들과 지성인들이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뜬 눈으로 이끌어가기를 염원합니다. 종교 세계 시민성, 그리고 하나의 세계라는 어려운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오늘에 이어진 모든

담론의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까닭 있는 내용이었고, 어제 중국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4년간 중국에서 교화를 하고 계신 분께서 오늘의 이 종교 세계 시민성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유익해서 한 부분도 빠뜨릴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기도와 환영사부터 코로나 이후의 세계 시민 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이 평화 대담, 지식 대담, 글로벌 대담, 고위급 회담, 그리고 청년 대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의자의 네 발의 역할과 같습니다. 평화 대담은 안팎을 실현하는 우리의 염원. 그리고 어떻게 이 평화를 이룩해나가야 할까 고민하신 분들의 제안이 있었고, 지식 대담은 집단 지성을 어떻게 평화를 연구해서 이루어낼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대담과 고위급 대담, 청년 대담에 있는 부분은 실천적인 측면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 우산의 각 날과 같다 여겨 집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서로 지탱해서 살 수 없는 중요한 대담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담을 통해서 향후 10년간 이 내용을 어떻게 계획화하고 실질적으로 리스트화 하고, 여기서 리스트화 한다는 것은 계획과 실행, 점검, 다시 계획, 실행, 점검해가며 업데이트해가는 노력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각자 함께 참여했던 그 경험과 지식, 실천이 한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몇 년 전 가톨릭 불교간 모임으로 로마에 갔을 때 레오 신부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레오 신부님 외에 타 신부님과 수녀님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도 가족처럼 연결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메시지를 해주시는 미국 전미 환경 단체 수잔 선생님, 말리아 수녀님은 하와이에 계시면서 종교연합을 실천하신 그 내용을 세계 불교 여성대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함께 해주십사 하는 요청에 두 번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전우탁 선생님 외에 원불교 교수 교무님들, 포콜라레

선생님들 함께 천도교까지 이어지는 모든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는 이미 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이미 한 가족이었으니 아직 가족이라고 느끼지 못한 각 개인과 조직, 예를 들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RFP, WFP와 같은 큰 종교 연합활동 조직들을 연결시켜서 향후 함께 나아가는 실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가는 노력인데, 예를 들면 정치와 종교 기구와의 만남, 즉 종교연합기구인 샌프란시스코 인터페이스 카운로우도 있고, URI도 있고, 중동지역의 아디안이라는 종교연합기구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실천가와 종교연합기구와의 만남, 학계 학자들과 종교연합기구와의 만남, 그 대화를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나가고 그 장을 꼭 만들어야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남이 현재의 물질 개벽을 당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과 대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 하나의 가족임을 알게 되는 축진제, 축매제 역할이 되려고 합니다. 그 축매제는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이 먼저 할수록, 어느 팀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실천하는 축매제가 될수록 반동은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엘레인 돈린께서 800여 개의 종교 단체가 함께 있는 곳에 가서 이 내용을 공유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먼저 실천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가족이 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의 축매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사호 선생님께서도 거기에 많은 축매제 역할을 붙여넣어 주시는 분이 되시리라 기대를 하고, 저희가 글로벌 종교 연합, 세계 시민 사회, 세계가 코로나 이후로 더 이상 나와, 나의 가족이 떨어져 있지 않고, 국가와 국가가 떨어져 있지 않다, 내안의 평화가 내 가족의 평화이자 내 나라의 평화이며 내 나라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가 되었음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모두 모아서 연결시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플로어 토론을 통해서 저도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배우는 장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호: 감사합니다. 그물처럼 촘촘한 망, 그리고 업데이트 미래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훌륭한 말씀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젊은 청년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중에는 이번 코로나가 종교의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종교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은 종교 그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종교 조직,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황상원 교무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여러분의 아픔을 서로 나누자는 것은 종교도, 세계도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고위급 회담 중에서는 UN 조직 그 자체라든지, 이러한 기관의 역할은 아버지에게 해당하고

교육, 종교는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는 부부라는 말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에 걸쳐서 이번에는 원불교가 중심이 되어서 열린 행사이기 때문에 UN이나 UR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UN과 같은 정치적 배경이 있더라도 마음만으로도 종교 조직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전 UN 사무총장이신 김원수 총장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를 들어 물질이 너무 발전해서 정신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는 한 인류의 문명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듯이 종교가 더욱더 정신적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과학 기술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과학 기술과 종교는 상호협력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저는 2000년 전의 인도, 1500년 전의 유럽에서 가질 수 없었던 기술과 지금의 과학 기술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증된 것이 전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검증되어갈 것입니다. 종교가 우리들이 모르는 것들이 과학 기술의 뒷받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역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 사회의 근본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로가 어떤 종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의 정신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학습해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가 협력해가는 것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황상원 교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는 수천 개의 종교 연합이 있는데 이것이 왜 UN과 같이 발전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이지만 문명으로서의 UN 기관이 세계 종교와 함께 연합을 하면서 이 조직을 확장해나감으로써 UN 안보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만들어 지금 조직의 힘과 종교의 힘, 이 힘을 합쳐서 UN이 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나머지 시간 동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 청년들을 위해 제가 지명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성인부터 이야기를 한 뒤 청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탈 리(이순영) 선생님께 이야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종교와 사회적 기업의 움직임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영: 종교들이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많이 표현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적으로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내용이 충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종교 간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톨릭에

서 프란체스카 교황께서도 많이 쓰시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위기, 문제, 갈등 등을 함께 대면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동반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이 정화되는 것이 종교 간 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직적인 면을 생각해야겠지만 우선 그 내용으로는 함께 동반을 선언하는 여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동반자적으로서 앞으로 계속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연합을 만들어 시작하는 것에 앞서서 그 과정으로서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기회에 좋은 스피치를 해주신 덕분에 생긴 좋은 자료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두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은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UN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UN이 바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또 지금은 UN 자체의 개혁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UN이 창설된 역할을 잘하려면 거기에서 강대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은 면이 두드러지지 않고 또 약한 나라를 보호해주는 면이 두드러지게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대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좋은 의견과 더불어 여기에 대해서 작더라도 실천에 옮기고 이런 좋은 경험들을 함께 작더라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시작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볼 때 일본의 리쇼 코사카이에서 여러분이 참석하신 것을 보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두 단체의 창시자들께서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1979년이었는데, 두 분이 만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마치 유토피아 같은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두 분이 만나시면서 서로를 굉장히 잘 이해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함께 나누는 교류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황상원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종교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이 만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들이 협력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호: 크리스타 리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시노리 마르타 선생님께도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요시노리 마르타: 오늘 너무 좋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 종교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면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종교의 서로 다름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종교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과 자비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힌두교 등 죽이지 않는다, 훔치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불륜을 하지 않는다, 등 세상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적인 도덕을 이 종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의 흔들림이 세상의 흔들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가지 기본적인 도덕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체를 대상으로 상당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무언가를 훔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준다는 개념입니다. 불륜을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사랑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면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종교라는 이름하에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다면 이 네 가지 도덕 개념을 실천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 문화를 만들어 오면서 우리는 이는 인간의 기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민족들의 기원, 지역들의 기원, 국가의 기원 모두 따로따로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 저희와 같은 종교인들이 종교의 다름, 민족의 다름 등의 벽을 넘어서서 세계의 사람들과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꿈을 가진다면 이는 분명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종교인이 그런 장벽을 넘어서서 함께 손을 잡고 연기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호: 마르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셨듯이 뒤에 지구가 보이는데요(마르타 선생님 좀 배경이 우주임) 정말 말씀이 잘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연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바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케우치님이 일본 측 학생이신데요, 여러 번 자신이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케우치: 네. 이사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IARF 일본지부 타케우치입니다. 오늘 귀중한 의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IARF 일본지부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특정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믿지 않는 일본인 학생의 입장에서 오늘 회의의 감상을 말하겠습니다. 이사호 선생님께서 종교의 협력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서로의 정신세계를 진지하게 배우는 것, 세 번째가 서로의 협력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단일민

죽 국가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지구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에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는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경우에는 같은 민족들이 작은 섬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더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종교 간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앙인의 비율이 적은 일본에 있어서 그 세 가지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옴 진리교에 의한 지하철 살인 사건 등 종교단체에 의한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종교는 사람들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최적의 도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사에서 배운 점에 대해서 저와 같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교는 지금 시대에서 꼭 필요하고 절대로 시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귀중한 회의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사호: 다케우치씨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천도교 지도자들이 위생이나 생활 지침을 알려주셔서 극복한 경험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분 발언하고 싶으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황상원: 발언이라기보다는 저는 아까 이순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함께 나눈 대화가 ICCGC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공유되고 공동 협력이 되어서 그 곳에서 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놓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마루타, 타케우치씨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호: 감사합니다. 저는 플로어 여러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전에 먼저 IARF는 제30회 세계대회를 유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국제 자유 종교 연맹입니다. 여기에서 활약하고 계신 카즈야 스님 모셨습니다. 세대 간 교류라는 면에서 저는 사람을 나이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에 따라서 청년인지 노인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카즈야스: 저는 지금 나고야에 있는데 나고야 대학교에서 대학생 여러분들도 계셔서 2년간 유학을 하러 오셨을 때 상당히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생활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화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를 하여 더 넓은 시야로 문화의 지표 등을 더욱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의 장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종교도 마찬가지로지만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라는 것 또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웠으면 합니다. (팔찌를 보여주며) 저는 3년 전에 WCRP라는 독일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했을 때 이 팔찌를 원불교 분에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화의 팔찌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때의 기억을 가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호: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다문화를 수용하는 일본인이 더욱더 늘어나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진정이 되면 젊은이들이 나고야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마지막 한 분 발언하실 분이 계신가요?

카토 줄리우스-케이: 안녕하십니까? 카토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시청을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지구를 구하기 위한,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각국의 국가, 환경,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아들의 오토바이가 망가져서 아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마침 주차장에 있던 처음 보는 젊은 청년들이 저희들을 도와서 오토바이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부품이 모자라서 그 젊은이의 차에 타고 아들이 부품을 사러 나갔습니다. 아마 배터리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구라는 소중한 행성이 여러 부분 망가져있는데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져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만난 청년들이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오토바이를 고쳐주었던 것은 부모로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임을 시작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저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젊은 세대의 감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분들과 줌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호: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가 매일 어깨를 맞대고 있는 것처럼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카토 씨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제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고 한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일본에 도움을 청하고 일본에 위험이 생겼을 때는 한국분들께서 제일 먼저 달려와주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종교연합, 국가를 넘어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앞날은 상당히 멀고 힘듭니다. 인드라마를 꼼꼼하게 준비해나가면서 재원 문제, 조직으로서 UN과 같은 힘을 갖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 행동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그 길은 반드시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순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수십 년 후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박수로 마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 인사말



남 공 문

원불교 종교연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종교연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광대학교 남공문 교수입니다.

먼저 1박 2일 동안 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의 주제 발표 및 토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특히, 이 번 행사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정성을 다 해 주신 종교연합 회장님, 국제부장님, 스태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하나의 지구촌 시대’가 급속히 들어서면서, 세계화 또는 글로벌화라는 단어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는 많이 발전하고 모든 것들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초고소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어느 특정 시간에, 어느 특정 공간을 초월한 초연결, 초협업의 시대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하는 이런 이면에, 사회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하나 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성 상실 문제라든지, 빈곤 및 무지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생명존중 문제, 인권 문제, 국가 간 분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 없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코로나19는, 이제는 인류가 그 동안 겪어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환경으로 빠져들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이면의 문제들은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병행하는 인류사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특정 개인, 집단,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특정 집단이나 국가가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세계시민성을 바탕으로 종교 간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 또는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연합 간의 집단 지성을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인류의 행복과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 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이 세계시민성을 회복하고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나의 세계,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모토가 실현되고 세계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2021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